



## 모교 국악연주단 미 5개 도시 순회 공연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로 지난 10월 13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교70주년 국악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친 모교 국악연주단이 미주 5개 도시 순회 공연에 나섰다. 12월 14일 LA 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시작한 공연은 17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 동부팀은 20일 보스턴, 21일 필라델피아, 27일 뉴욕 공연으로 이어졌고, 서부팀은 20일 LA 작가의 집에서 두번째 공연을 마쳤다. 김승근(국악과 85) 국악과장 교수의 인솔하에 양경숙 교수와 재학생 14명으로 이루어진 연주단은 공연 가는 곳마다 열띤 호응을 받으며 한민족의 멋진 가락을 미국 땅에 선사했다.

한국에서 지면을 통해 보내 온 서울음대 전상직(음대 82)학장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축하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음악대학 역시 5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한국 음악계에 남긴 족적에 힘입어 세계적 음악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국악과는 비록 뒤늦게 개설(1959년)되었으나 우리 전통 음악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음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높은 연구 및 교육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SNU Korean Music Ensemble이 이국의 동문들께 우리 음악의 정수를 전해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기획처, 미주동창회 손재욱 회장님, 남가주 총동창회 김병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SNU Korean Music Ensemble은 서울음대

### 남가주, 텍사스 오스틴,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성황리에 공연 마쳐

국악과의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학과의 교수진 및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주단은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미국 전역 순회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과 50주년 유럽공연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 등 다양한 해외연주를 하였다. 올해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1월 태국의 4개 국제협력대학에서의 초청연주를 시작으로 대만, 이집트, 프랑스,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음악의 우수성과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미국을 방문한 공연팀은 다음과 같다: 해금에 양경숙 (73학번, 국악과 교수), 김은영 (11학번, 대학원), 주정현 (13학번, 피리에 김

경아 (한양대 91학번, 국악과 교수), 송민섭 (04학번), 박소윤 (14학번), 거문고에 이연진 (12학번), 대금에 심성현 (13학번), 이성동 (14학번), 가야금에 윤지현(12학번), 박종찬 (15학번), 아쟁에 김다인 (16학번), 장고에 양종윤(10학번), 정가에 이유림 (16학번), 판소리에 조수환 (16학번), 집박(김동석 64학번,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이들이 연주한 곡목은 “천년만세”, “시나위”,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함녕지곡” 등의 전통음악과故이성현(음대 61, 전 서울음대 교수) 작곡 “가곡 사슴”, 홍선례(음대 70, 남가주 총동창회 문화위원장) 작곡 “거문고 독주곡 산” 등이었다.

**보스턴 :** 미동부 연주단은 보스턴을 방문 미국인, 한인 동포와, 서울대 동문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 및 워크숍을 가졌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보스턴 다운타운 뉴 잉글랜드 컨저버터리(NEC)에서 개최된 이날 공연에서는 모교 국악과 재학중인 윤지현(가야금), 양종윤(장구), 대학원에 재학중

인 김은영(해금)이 그윽한 우리나라의 율조를 관객들에게 전했다. 연산희상, 등 5차례의 연주를 할 때마다 김은영 학생이 연주곡의 의미와 내용 등을 영어로 해설을 해 한인 동포와 미국인에게 익숙치 않은 한국 가락의 이해를 도왔다.

이들은 자체 연주가 끝난 후 트럼펫을 가지고 방청을 온 미국인 학생과 즉석에서 협연을 갖고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 악기와와의 협연을 가

졌다. 이날 현장 공연을 준비한 김도연(NEC 박사과정, 서울대 음대 졸) 학생은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과 질의 응답을 갖고 한국 국악과 서양 음악과의 협연 등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다.

이날 공연은 보스턴한미예술협회(KCSB)의 김병국 회장(공대 71)과 김유경 동문(음대 72)이 후원하고 제반 준비를 지원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정태영 회장은 보스턴까지 와서 귀중하고 훌륭한 공연을 해준 국악팀과 김승근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필라델피아 :** 보스턴 공연을 마친 연주단은 (4면에 계속)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     |                              |       |                                |
|-----|------------------------------|-------|--------------------------------|
| 1   | 모교 국악연주단 미 5개 도시 순회 공연       | 14    | 특집_오늘의 나를 있게한 말과 책             |
| 2   | 손재욱,이항렬-신년사/하용출-대통령만 탄핵      | 15    | 우주항공영웅, 존 글린                   |
| 3   | 서정화-신년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대인의 사명 | 16-17 | 지부회장단 2017 신년인사                |
| 4-5 | 국악연주단 순회공연 화보/공연후기           | 18    | 조중행-벌꿀춘지/노영일-선물                |
| 6   | 통합개교 70주년 홍커밍데이/내나아 아흔 둘     | 19    | 이철진-단상/지재원-백난로 속에서             |
| 7   | 어누이티의 장점/사랑의 손수레             | 20    | 송윤정-디프레이션디너/서윤석-고 서진석 박사 추모시   |
| 8-9 | 지부소개: 남가주                    | 21    | 한정민-커뮤니티를 향해/김용대-IT/한인섭-독자의 광장 |
| 10  | 뉴욕/워싱턴 DC/휴스턴/하와이 송년모임       | 22    | 이현림-베토벤, 그의 절망, 사랑, 그리고 행복     |
| 11  | 플로리다/워싱턴주/남가주 송년모임           | 23    | 여행기-낭만의 기차여행                   |
| 12  | 양군식 자선음악회/남가주 홀콘서트           | 24    | 박준창-영화/건강-불로장생                 |
| 13  | 뉴욕-장학금 수여/감사편지/15대 회장후보 소개   | 25    | 이달의 사진/2016년의 사자성어/ 단어         |



**[신년사]**



손재욱 (가정 77)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미주총동창회는 2016년도에 제 25차 평의원회 주최, 제 5차 Brain Network, 제 35차 홈커밍데이에 참석, 나눔위원회 회칙통과를 한 해였습니다. 남가주, 플로리다, 조지아, 뉴욕 지부를 방문하고, 크고작은 동문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인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이에 디자이너와 사무장이 바뀌면서 동창회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총 7,000 여명의 회원은 그동안에 발송된 메일을 제외하면 6,609 명의 미주동문 회원 수가 됩니다. 새로운 동문들을 만나게 되면 회원정보를 더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법 70대 학번이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세월이 조용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서울대 동문이기 때문에 한번은 봉사를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2년간 회장직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필라지부 전방남 회장님을 생각해 보며 서울대 동문으로서 자격과 의무를 느끼게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광고로 도와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달마다 원고를 모으고 작성하기도 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논설위원장 및 논설위원들과 적시에 마다하지 않고 소매를 견여부치는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동창회의 운영을 위해 마음을 쓰시는 평의원들과 종신이사님들도 기억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동문님께서는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뒤로 하고 이제는 새해연도에 익숙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미주동창회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서울대의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보람있는 일이 생기고, 서로가 더욱 살맛이 나는 위로가 충만하고, 지를 위한 지가 아닌, 인을 위한 덕이 충만한 만남의 장을 키워 나갈 때 명문지기 그 이름의 의미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에는 민밀당! 서로 믿고, 믿어주고, 당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주동창회 회장 손재욱

**[신년사]**



이향열 (법대 57)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니 우리들은 많은 성탄카드와 연하장을 받게 된다. 그중 많은 카드들의 메시지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있다. 불행하게도 매년 바라는 평화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해도 금년과 같이 많은 전쟁, 폭력, 테러리즘의 악마가 날뛸 것 같다. 성탄절이 아니라도 어느 종교의 모임을 가진지 우리는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한다. 현대 중요한 종교들의 창시자인 예수, 석가, 모하메드들도 다 평화를 설교하고 행동으로 실천들을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를 믿는 많은 현대인들은 평화를 추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종교의 이름 아래 서로 무참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기독교와 모슬렘의 성지인 중동에서는 모슬렘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이 범범이 되어 싸움을 하고 있으며 모슬렘교인들이 리도 시아, 수니파가 갈라져 현재 시리아에서 치참한 투쟁을 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탄생지인 인도와 파키스탄지역에서는 회교, 힌두교, 모슬렘교가 으르렁거린다.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드는 허탈한 생각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오랫동안 국민에게만 베일에 가려져 터질 때까지 지속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소를 자아내는 것은 사실과 사육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조기 대선에 눈이 어두워 대통령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즉각 하야를 외치는 야당들의 행동이다. 여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양측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은 대통령을 끼고 있어야 살고 다른 쪽은 대통령을 버려야 자기 세상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연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정치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

박 대통령 자신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당 중진이 언급했듯 최순실의 존재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이를 알면서도 오래 방치한 이면에 한국의 오랜 고질병인 지역 패권주의와 이에 기초한 뿌리 깊은 대통령 맹종주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역 기반과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엮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비판하기 어렵다. 국가·국민에 대한 봉사와 대통령에 대한 맹종을 구분하기도 어렵게 된다. 심지어 평생 해온 학문적 입

**2017년을 맞으며**

**새해와 성탄절의 메시지**

기독교가 널리퍼진 서구에서도 마치 11세기 종교전쟁을 재현 시키려는 듯 얼마전까지만 북아일랜드에서 구교와 신교가 서로 ‘테러리즘’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평안한가?

무신론의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러시아의 푸틴은 만년 대통령으로 남아 소련의 재기와 그의 사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소비엣 등과 소련 위성국가들을 침략하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도 중국의 대제국 건립을 꿈꾸고 있으며 인민의 자유는 예전과 같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 폭력국가 중에서도 가장 날뛰는 집단이 우리의 동족인 북한이니 더욱 기가 막힌다. 동족상잔의 6.25 이후 계속되는 그들의 폭력행위는 바마의 장군 암살 사건, 연평도 폭력, 천안함 침몰등으로 이어졌으며 지금은 20여개의 원자폭탄, 6번째의 미사일 발사 실험등으로 호시탐탐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의 폭행과 정적에 대한 처형등은 역사에도 자세히 기록될 것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일케가드 (Kierkegaard)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류중에는 극단주의자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시 강조하지만 성실한 인품과 좋은 성격이외에도 자기 주장만 옳고 나만 제일 똑똑하다는 독선자나 비타협자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자기의 가치관이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선동하여 통치한다면 결국 실패한 위정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새해의 선물은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은...  
〈눈설위원장 전 세파드 대학 석좌교수〉

**[신년사]**



서정화 (법대 55)

대한민국의 후대의 역사가들이 2016년을 어떻게 기록할 지는 잘 모르겠으나, ‘多事多難’이라는 식상한 표현을 뛰어넘는 보다 절실한 단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은 극심했고, 그 여파는 여전히 국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움은 한때의 소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위기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 세계사적인 격변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나 어떤 식으로건, 2016년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식자들이 1987년과 1997년의 연정선에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된 제6공화국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부여하여, 국가를 통합하고 정부기구를 문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1980년대 말 국가 체제를 새로이 기획한 선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강력한 대통령은 곧 재왕적 대통령되어 되어 도리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권력층의 문제를 견여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권위가 조성되고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을 새로이 조정해야 할

**[신년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대인의 사명**

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대한민국이 작금의 지구적 위기적 위기를 극복하기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97년 IMF의 금융구제 이후, 한국 경제는 나름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한국 경제는 성

념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의 중심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중심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열강은 서구적 인권담론과 자유시장경제를 제시하며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핵심부에서부터 세계의 해체는 시작되고 있습

국제환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도생(圖生)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정성의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모든 과제들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정당한 권위를 형성하여 국민을 통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굳건한 지도 집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구한말 당시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모아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서울대인은 강점과 분단의 고통을 이겨나갔던 한국 사회의 중심에서 국가를 선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지금, 우리 서울대인은 다시 한 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총동창회가 설립된 이유 또한 후배들과 함께 분발하여 봉사하기 위함이며, 많은 동문들이 여기에 함께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주 동창회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동문들의 활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창조적 네트워크가 결성되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월 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273호 | 2017년 1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신년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대인의 사명**

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대한민국이 작금의 지구적 위기적 위기를 극복하기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97년 IMF의 금융구제 이후, 한국 경제는 나름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한국 경제는 성

념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의 중심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중심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열강은 서구적 인권담론과 자유시장경제를 제시하며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핵심부에서부터 세계의 해체는 시작되고 있습

국제환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도생(圖生)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정성의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모든 과제들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정당한 권위를 형성하여 국민을 통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굳건한 지도 집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구한말 당시 민족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모아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서울대인은 강점과 분단의 고통을 이겨나갔던 한국 사회의 중심에서 국가를 선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지금, 우리 서울대인은 다시 한 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총동창회가 설립된 이유 또한 후배들과 함께 분발하여 봉사하기 위함이며, 많은 동문들이 여기에 함께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주 동창회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동문들의 활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창조적 네트워크가 결성되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월 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은 극심했고 국제환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도생(圖生)할 것을 요구한다.

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의 위기를 넘어 국민소득 30,000 달러 시대에 곧 진입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만성적인 저성장이 이어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 속에서, 1997년 수립된 한국의 경제체제는 오늘날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견된 몰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동력을 창출해낼 기술 혁신은 실종되었습니다. 정체되어있는 시장에 발전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발주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수한 강소기업(Hidden-Champion)을 설립하여 내수경제를 튼튼히 하고 사회의 저변을 강건케 하며, 세계로 나아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공하여 국민 경제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인재들

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식 삶의 방식(American Way of Life)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제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EU를 탈퇴하겠다는 국민투표를 통과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자국의 존립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존중해야 할 국제적 기준은 점차 해소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외교적 안정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는 바로 자유주의 우방들과의 긴밀한 공조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할 수 있었던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우방들의 연대체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

## 트럼프가 실제 미국의 빚장을 걸어 잠근다면...

있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평양 동반자 협정(TPP) 체결을 통해 무역량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올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물거품으로 그치게 됐다. 물거품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가 선거 공약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산 물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무역 전쟁의 발발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세계 무역 규모는 3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도 그에 상응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30년대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다. 지금은 세계 최대 채무국가다. 오바마 집권 8년간 미 국채는 거의 2배가 늘어 19조 달러를 넘어섰다. 18조 달러로 추산되는 미 GDP의 100%가 넘는다.

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지금까지 사주던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내다 팔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 후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연방 국채의 수익률은 폭

등하고 있다. 올 7월 1.3% 수준이던 이 채권 수익률은 이제는 2.2%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과 상업용 빌딩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은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이다. 이들은 중국과 멕시코를 때려잡아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트럼프의 허황된 약속에 속아 그에게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물건 수입을 금지한다고 사라진 일자리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들이 아니라더라도 미국 노동자의 1/10 수입 임금으로 제품을 생산할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빚장을 내걸 것인가.

수입 봉쇄가 일자리 귀환을 약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컴퓨터와 로봇, 인공지능의 약전에 따른 자동화 물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러드 대왕’을 추종하는 ‘러다이트’를 자처하며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방직기를 때려부셨지만 도도한 기술 혁신의 대세를 막

지는 못했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아무도 거스르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다.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빚장을 걸어 잠그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적화비를 세운 조선의 대원군이 그 표본이다. 미국은 이제와 그 뒤를 밟으려는가.

트럼프가 공약을 실천해 무역 전쟁이 촉발되고 금리가 올라 그나마 살아나던 부동산마저 죽는다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그를 지지했던 중하류층 백인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등을 돌릴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로서는 퇴로가 없는 셈이다.

이번 선거 전 전문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승리를 예측한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 후 트럼프가 임기 중 탄핵 당하거나 사임할 것이란 전망을 내렸다. 지금으로서는 터무니없는 주장 같다. 하지만 4년 전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 오늘 그녀가 어떻게 몰락하리라 짐작한 사람이 있었을까. “신이 인간을 벌하려 할 때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리스 속담이 생각난다.



<1면에서 계속>

받기차로 필라델피아에 도착해 21일 수요일 오후 1시, 필라 북쪽에 위치한 펜아시아 노인 복지원(원장 최임자, 부군 최정웅(공대64)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강당에서 공연했다. 화사한 한복 차림의 연주복을 입고 등장한 동문들의 연주가 20 여명의 필라지역 동문들과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노인들, 장내를 가득 채운 관중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하현도리, 경기풍류, 산조, 시나위가 독주, 또는 협주로 연주되었고, 후반부의 민요메들리에는 관중석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나온 노인들의 멋들어진 춤과 창을 전문으로 한 듯한 한 할머니의 구성진 창이 장내의 흥을 한껏 돋구었다.

**남가주 :** 20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PARKVIEW Gallery (작가의 집)에서 서울대

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국악과 초청음악회”가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들이 연주한 곡목은 “천년만세”, “시나위”,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합녕지곡” 등의 전통음악과故이성천(음대 61, 전 서울음대 교수) 작곡 “가곡 사슴”, 홍선례(음대 70, 남가주 총동창회 문화위원장) 작곡 “가문고 독주곡산” 등이었다.

그리고 남가주 동창회 동문의 찬조 출연이 있었는데, 최혜성(음대 99) 동문의 Flute Solo, “François Borne의 Carmen Fantasy 중 Highlight”, 김유은(음대 07) 동문의 Violin Solo, “Pablo de Sarasate의 Caprice Basque”, 제갈소망(음대 02) 동문의 Piano Solo, “F. Chopin의 Scherzo No. 3 in C-sharp Minor, Op. 39” 등의 연주가 있었다. 또한 “Franz

Doppler의 Duetttino Americains for Flute, Violin and Piano, Op. 37”을 최혜성, 김유은, 제갈소망 세 동문이 연주하였다.

특히 마지막 곡인 “합녕지곡”이 끝나고 김동석 동문의 국악기 설명과 함께 각 악기별로 앙블 독주가 있었다. 김병연 총동창회장의 인사가 있는 후, 연주자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아쉬운 여운을 남긴 채 공연은 막을 내렸다. 후에 김병연 총동창회장이 연주자들 각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12월 14일에는 LA한국문화원에서, 합녕지곡, 태평소 능가와 민요, 가곡 ‘우락’, 구름 시나위 등을 연주했고, 15일에는 한국의 전통 악기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소리를 들어보며, 민요 ‘진도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필라델피아:** 22일 저녁 손재옥 미주총동창회 회장님께서 동부연주단 환영 만찬과 홈콘서트가 열렸다. 연주단을 포함해 70학번 이후의 동문들과 가족 30 여명이 모인 이날 모임에서는 푸짐한 한식부페 만찬에 이어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박형준(공대87) 동문의 딸 세라(12살)양의 플룻으로 Carmen Fantasy를 판타스틱하게 연주했고, 차이코프스키 경연 본선에 진출했던 크리스티 김(17살)양이 ‘Ligetti Sonata for Solo Cello’를 연주했다.

이어 김승근 교수의 인사와 동문 연주단의 연주가 이어졌다. 후반부에는 가야금, 해금, 장고와 플룻, 첼로가 어울려진 국악·양악의 합주가 묘한 하모니를 이루며 어울렸고 성악과 동문들과 참석한 동문 모두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나라(신문희 곡)’를 합창했다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미주 공연후기]

## 국악을 품고 세계로

2016년 12월 12일 ~ 12월 30일 약 3주간에 걸쳐 미주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하여 오스틴, 보스턴, 필라델피아 마지막 뉴욕까지 총 5개의 도시에서 서울대학교의 개교70주년을 기념하고 또 미국에 계신 동문들과 현지인들에게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LA에 도착한 12월 12일에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에 계신 대선배님들을 뵙고 함께 식사하며 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미국에서 학교선배님들을 뵈 수 있어 한국의 따뜻한함을 느낄 수 있었고 어색했던 미국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12월 14일에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에서 첫 공연이었는데 이날은 특히 대선배 김동석 교수님께서 합녕지곡의 시작을 알리는 집박을 쳐주셨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있는 여러 기관의 관계자 분들과 현지인들 앞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국전통음악을 연주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한국문화원에서 미국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미국초등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악기를 소개하고, 함께 민요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특한 남도민요의 음계와 어색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래하는 학생들을 보며 음악에서는 다른 언어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두 번째로 도착한 오스틴에서는 17일에 오스틴한인회 주최로 아

시안 아메리칸 리소스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는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진출로 한인들이 점점 미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발전하는 오스틴의 모습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일 공연을 통해 낯선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터전을 꾸려나가는 많은 선생님들께 고함의 항수를 달래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보스턴입니다. 20일에 미국음악대학 중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보스턴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선배님(공대 71), 김유경선배님(음대 72) 김도연선배님(음대 10)의 도움으로 워크숍과 콘서트를 열어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현지 학생들과 시나위를 함께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EC에 재학중인 색소폰을 전공하는 학생과 함께 시나위를 연주했는데 그 학생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호기심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보다 불편함에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은 저와는 달리 새로운 장르의 독특한 선법과 박자체계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학생의 열린 태도에 많은 반성이 되고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연은 필라델피아의 PASS에서

이뤄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아시안 할아버지, 할머니의 복지를 위한 공간인 펜아시아노인복지원에서 공연을 하면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민요를 부르고, 저희의 음악에 맞춰 춤도 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높은 단상의 무대로 인해 관객들과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으나 음악 안에서 모두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서 있을 수 없었던 기억은 회장님대에서 연주했던 하우스 콘서트에서 함께 초대된 현지 2세 교포인 첼로와 플룻을 전공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고 노래반주도 같이했던 하나가 되는 자리와 뉴욕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 점심식사였습니다. 제갈은 선배님께서 맥으로 초대해주셔서 함께 칠면조요리를 나눠먹었는데, 마치 명절에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기억이 남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공기는 찬 겨울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도시는 소통의 도시,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는 이때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많은 음악장르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섞여있던 뉴욕처럼 이곳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의 키워드는 ‘소통’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민속음악인 Klezmer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금과도 비슷한 악기와 미니 트럼펫, 트럼펫, 바이올린 등등 다양한 악기들과 연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도아리랑과 Klezmer의 선율을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각 나라의 음악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때 진지하게 진도아리랑의 선율을 익혀나가고 연주할 때 상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고 소통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7일에 뉴욕에서 미주 공연의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뉴욕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Satoshi Takeishi(Percussion), Shoko Nagai(Piano & Electronics), Jonathan Goldberger(Guitar), Stephen



Hatnes(Trumpet), 최보람(violin) 5명의 연주자와 함께 공연하였습니다. 전통음악도 연주하고 5명의 연주자와 3-4명씩 조를 나눠서 혹은 다 함께 즉흥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즉흥음악이라는 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걱정을 많이 했으나 현지 연주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인사와 몇 마디의 말만 나눠보았지만 무대에서는 각자의 악기로 수많은 말을 주고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협업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연주자의 소리를 조금 더 잘 듣고 거기에 또 다른 반응을 얘기하여 더욱 풍성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미주공연을 다니면서 한국음악의 많은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진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께 고함의 정서를 선물해드릴 수도 있었고, 미국학생들에게는 색다른 음악장르를 소개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현지연주자들과도 음악으로 대화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낯선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든든한 사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을 뵈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던 이번 투어를 참여하면서 저도 제가 받은 것들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국악 12), 대학원 조교

## 사진 뉴스 SNU PHOTO

## 모교 국악 연주단 순회공연



冠岳大賞

제19회 관악대상 후보를 찾습니다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 발전과 총동창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우리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제9회 관악대상 후보자(단체)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부문/시상기준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 및 비동문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공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2. 구비서류 : 추천서, 피추천인 이력서 및 공적사항(서식에 맞춰 작성)\* 추천서는 이메일로 신청하십시오.

3. 추천서 접수 및 시상 : 2017년 1월 31일까지 마감하며, 2017년 2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7년 정기총회(2017년 3월 17일 금요일에서 시상

4. 문의 및 접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신림동,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대표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이메일: webmaster@snu.ac.kr



## 모교 통합개교 70주년 홈커밍데이에 다녀와서...



허유선 (가정 83)

미주 동창회에서는 이번 70주년 홈커밍데이에 약 30 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이 참여했다.

13 대 미주동창회(회장 손재옥)가 특별 계획한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는, 졸업 50 년만에 처음으로 관악캠퍼스를 보신 동문부터 80 년대 잠깐의 교수생활로 최루탄 냄새의

환락을 기억하는 동문 등, 40년대 학번부터 80 년대 학번까지의 미주 동문들이, 10 월15 일 마포 장학회관에서 임광수 전 총동창회장의 따뜻한 마중으로 시작되었다.

홈커밍데이 당일은 비가 왔지만 생각보다 활기차게 많은 동문들이 게임과 장기자랑으로 흥을 돋구었다. 미주 동문 역시 학교 로고와 새겨진 여러 기념상품을 받고 즐거워했다. 월요일에는 서울대 홍보관을 방문해 모교의 70 년 역사를 볼 수 있었다. 규장각에서 말로만 듣던 대동여지도를 보고 다른 박물관이 아닌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점심은 지난 예일대 방문 후 필라델피아 미주 평의원 회의에 참석해 '선한 인재 장학금'을 소개하며 서울대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천원의 아침식사'를 예로 든 성낙인 총장님으로부터 약속된 식사가 학생식당에서 있었다. 식사 후 부지런히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재학생들을 보며 과거의 자신들의 대학생활을 추억하며 홈커밍데이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13 대 미주 동창회보에 'My story and Your history' 라는 지면을 통해, 미주 동문들의 이민생활과 삶의 철학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선배님들의 이민생활이 녹아있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많은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다고 한다.

My story 의 질문 중에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만일 서울대 학장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동문들이 한국을 떠나온 이후, 모교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장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발전된 모교에서 대학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대답과 역시 서울대 졸업생처럼 전공 공부 외에 다른 분야 공부를 더 했었으면 하는 대답이 많았다.

미주에서 사시는 동문들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 미주에 살게된 동문들은 사실 미국 각 대학의 alumni 들의 행사가 참가할 일이 많다.

유학으로 온 동문들은 일단 모교 이외에 다른 미국대학의 alumni 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국대학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공부한 대학의 parents 로 alumni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항상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교 서울대의 홈커밍데이 행사는 미주동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3 일간의 일정으로 꾸며진 행사로, 앞으로도 미주 동문들의 홈커밍데이 참가를 위한 모교방문을 계속 장려하도록 미주동창회가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미주동창회의 평의원회의와 각 지부행사에 본국 총동창회의 참가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발전을 같이 이루어 가길 바란다.

미주에서 생활을 한 교동문들에게 홈커밍데이를 통해, 모교를 방문할 기회를 후원해 준 서울대와 서울대 총동창회에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편집위원, 특별사입국장〉

내 나이가 만으로 92세가 되니, 살아있는 동창생들 중에 아마 가장 나이가 많지 않을까? 막내딸 옥권(미대 76)이의 권유로 내가 꿈 많아야 할 대학시절과 젊은 날을, 전쟁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을 거치며 살아온 나의 경험을 동창회보에 나누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 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본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겪어선지 과거를 회상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우리 가정은 일찌기 미국 선교사를 만나 이조시대때 목사가 되신 조부 김재찬 목사와 조모 노살로메 전도사 덕분에 일찍 복음화 되었었고, 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감압정치를 시작한지 15년 후인 1924년에 출생하였으며, 1945년 내 나이 21세 때,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다.

1940년 양정고보 졸업반 5학년 때는 미일 전쟁으로 태평양의 많은 섬에서, 또 육지에서는 만주와 중국, 동남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치열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당시 한국 청년들이 필요한 일본은,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시작해서, 학도병 제도로 20세 전후의 학생들을 끌여가기 시작 했으며 더디어 징병 제도를 발표하게 되었다. 만 20세만 되면 일본군대에 끌려가게 되었다. 둘째 형 김영록도 이때에 일본으로 끌려갔다. 다만 의대와 약대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군 입대가 연기된다는 제도가 있었다.

3월의 입학시험을 앞두고, 누구나 목표하는 전공에 하나뿐인 세브란스(연대 의대)와 서울 약대를 목표했는데, 연대는 80명 정원 전부가 한국학생 몫이니 좀 수월해 보였으며 약대는 일본 60명, 한국 30명, 대만 6명으로 더 어려운 경쟁이다.

한반의 친구 부모로부터 시험지를 보여달라는 메수도 받았으나 나만 합격이 되어, 일제시대의 막바지인 1941년 을지로 6가에 있는 경성약학전문에 입학해 약대 4년으로 일본을 위한 개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약대 3학년때 내 나이 20세이었다. 만리현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았었으며, 당시 18세 김정숙을 좋아하게 되어 그해 10월에 결혼하였다.

1945년 졸업하는 해에 동창들이 서로 헤어지기 아쉽고 또 그 전의 일본교수들이 해방이 되어 다 떠나자 서울대에서는 흥분과 교수들 한국교수들을 초빙해서 우리 약전 동기들은 한해 더 머물러 있기로 하고 1946년에 서울대 약대 1회로 졸업을 했다. 약전에서 만나 70여년을 아직까지 친구로 생을 나눈 방은호는 목사의 아들로 배재 출신이고 나도 양정출신으로 둘다 미션 사립고등학교 출신이라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보다 일제가 점령한 약전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 서로 의지하며 보호하는 단짝 친구였다. 약전은 의전과 같은 건물을 썼고 약전을 졸업하고 의대로 다시 들어가 의사가 된 홍사학 교수같은 친구도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은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 한국은 남과 북 두나라로 각각 독립을 하니,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너는 어느쪽이나? 온 나라가 직장도 거의 없고 질서도 없고 치안도 없고, 한국인으로 120번째의 약사, 그토록 힘들게 획득한 면허이건만 황무지 같이 황폐한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듯 하다. 세명의 친구들은 미국 유학을 떠났으나,

처자를 책임지고 있는 나는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였다.

마침 일본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취직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부족한 재료와 정제되지 않은 알콜을 정제해서 브랜디를 만들어 산업박람회에서 특등상을 받았다. 회사를 살린 공로로 영국제 ‘할리—’ 오토바이를 상으로 받기도 하여 동생 영조를 할리 애용자로 만들기도 했으나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입했던 공장에 사직을 하고 효자동 쪽대기에 있던 경기상고에서 화학교사를 했고 그후 풍문여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무주임까지 지내기도했다.

사변 전후해서 미국에서 보내오는 약품을 서울역 창고에 분류, 보관, 배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인민군들은 약품들을 서울 대학병원에 보내 인민군 부상자들을 치료하는데 썼고 나는 인민군들의 감시하에 서울대학 병원에서 이 역할을 담당했고 국군과 인민군의 반복되는 서울 탈환에 묵묵히 이 일을 감당했다. 인민군이 병원을 장악했을 때는 국군 부상병들은 치료를 못받아 죽거나 인민군들이 밤사이에 죽어 병원 앞마당에 묻었다. 그 위를 지날 때 단단하지 못한 땅이 쿨렁쿨렁 발밑에 느껴지곤 했다.

국군이 낙동강에서 반격, 인천 상륙작전 때는 인민군들이 북으로 철수하며 간호사, 의사, 약사들을 다 트럭에 태워 대려갈 때 동두천에서 트럭에서 뛰어 내려 숨어 기다리며 남북을 면하기도 했다. 서울이 탈환되자 국군이 서울 거리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을 검색하며 징병을 하기 시작할 때 나도 봉래교를

건너던 중 불췌히 서대문 구치소에 갇히고 말았다. 군의관으로 있는 사촌동생 김광연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동생에게 무언의 신호로, 달린 식구들과 세아이 아버지로 징집될 수 없는 간절한 사정을 표현했다. 광연이 내린 병명은 고환염이었고 그후 소령이 내 사타구니 밑을 톡톡치더니 실격을 시켰다.

일사후퇴때는 대식구를 트럭에 태워 대구로 피난가서 살았는데 학자이지만 하던 아버님과 식구들은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 팔에 차고 있던 부모님 시계와 형님의 시계를 가지고 시계장사를 시작해 달라는 트럭에 뛰어오르기도 해가면서 인천이다 대전이다 누르기도 다니며 위험한 장사를 했다. 미군에 잡히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정부보조로 일본인이 경영하던 여주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경영하기도 했고 남포산업이란 개발업체를 세워 서울역 앞에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던 고층건물을 짓기도 했으나 불안정한 전후 경제사정과 부정직한 사업풍토에서 나는 번번히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했다. 아직도 그 5층 건물은 서울역 앞에 남아있다.

그후 약국을 해서 아이들 다섯을 대학, 유학까지 보내고 70이 넘자 아이들 곁에 살고자 20년 넘게 LA 동부 교외에서 살고 있다.

내 친구 방은호(사진 우)는 워싱턴시에서 열심히 살고서로 그리워 하지만 그는 목수술로 성대가 망가지고 나는 귀가 어두워 전화대화가 어렵다. 가끔 막내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주고 받으며 안부를 물어보곤한다. 70년 넘은 우정을 이렇게 서로 확인하며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김영기 (약대 41)

[경제]



김창수 (약대 64)

어누이티(Annuity: 개인연금보험)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에 신경을 쓰기 싫어하고 평생 지불이 보장되면서 매월 연금 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투자 수단이다. 모든 투자 대상들이 각기 특징이 있어서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누이티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 장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누이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가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어누이티에 불입하는 적립금은 불입 시에 세금공제가 되지 않지만, 투자 소득에 대해 인출 시까지 소득세가 연기된다. 그래서 다른 은퇴플랜과 비슷하다. 즉 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없이 계속해서 재투자 되므로, 일반 투자에 비해 투자 효과가 좋다. 어누이티에 적립된 투자금은 대부분 평생 동안 연금식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으므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평생의 자금이 고갈되는 걱정이 없어진다. 그래서 은퇴플랜 이외에 전체 자산의 일부를 어누이티에 넣어두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르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장년층이나 은퇴자에게 적극 권장된다.

어누이티에 불입하는 자금원은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당좌계좌, 저축계좌, CD, 주식, 뮤추얼펀드, 상속재산 등 어디서든지 어누이티로 이체(Transfer)할 수 있다. IRA, 401(K), SEP, 기타 펜션 플랜 안에서도 어누이티를 선택할 수 있다. 어누이티는 매월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플랜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혹은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보통 계약 후 7년이 지나면, 조기 인출에 따르는 수수료 없이 인출

[나눔이야기]

서울 광진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김봉덕 씨(67)는 광고판이 달린 손수레(리어카) 덕분에 이달부터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김 씨가 끄는 손수레에는 가로 87cm, 세로 64cm 크기의 중고차 매매업체 광고판이 붙어 있다.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어 버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 남짓. 폐지 10kg을 모아도 고작 900원이 손에 남던 김 씨가 광고판 덕분에 받는 돈은 월 3만7000원 정도. 큰 힘이 된다.

폐지 수거 노인의 손수레에 기업 광고판을 달아주는 조건으로 후원을 받고, 이를 통해 폐지 수거 노인에게 지원금을 돌려주는 사회적 기업 ‘골림’이 최근 환경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다.

‘골림’은 10월 말 법인 등록을 마쳤고, 이달 7일부터 정식 사업을 시작했다. ‘골림’은 손수레 6대에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광진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월간 25만 원씩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당 월 4만1000원 정도에 계약한 것. 광고비의 90%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폐지 수거 노인 6명에게 각각 전달했다. 나머지는 손수레 구매비(대당 약 20만 원) 용도로 적립했다. 현재는 광진구에서 출발전 손수레 6대가 전부지만 골림은 이를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골림’은 고물상 업주들의 모임인 ‘전국고물상연합’과 서울대 동아리인 ‘인엑투스(Enactus)’가 의기투합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 어누이티의 장단점



해서, 비상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인출액 중에 투자소득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 단지 은퇴플랜 안에서 어누이티를 가지고 있다가 일시불로 인출을 하면, 은퇴 플랜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어누이티를 취급하는 금융·보험회사는 그 규모가 크고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성과가 좋다.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기 부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나눔이야기]

## 서울대생들과 고물상연합이 만든 ‘사랑의 손수레’



아이디어는 올 1월 인엑투스에서 먼저 나왔다. 인엑투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 목적으로 학생 30여 명이 모인 동아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수거 노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버스나 택시에 달린 광고판을 떠올렸다. 손수레로도 움직이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이들은 가벼운 손수레 개발부터 시작했다. 광고판을 달면 손수레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기존의 철근 대신 경량 파이프와 신소재를 활용했다. 덕분에 60kg에 달하는 무게를 35~40kg 정도로 줄였다.

손수레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더 큰 난관이 있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어누이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처지에 적합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어누이티에는 각종 수수료가 많아서 그 개설, 유지, 취소, 인출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어느 변동 어누이티(Variable Annuity)의 연간 관리 비용을 알아보면, Mortality & Expense Risk(1.18%), Administrative Fees(0.19%), Optional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Rider(0.61%), Optional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Rider(1.03%), Fund Expense for Underlying Funds(0.94%)등 비용 합계가 3.95%가 된다. 여기서 옵션을 택하지 않아서 1.64%를 빼도 2.31%가 된다. 그래서 어누이티 계약은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때, 이들 수수료 및 관련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장기 투자 및 연금 계약이므로, 가입 후 수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벌과금 성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수년 내에 자금을 써야 할 경우에는 어누이티를 사면 안 된다. 보통 7년 후에야 조기 인출 수수료가 없어진다.

어누이티 인출시 추가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투자 시 배당 소득이나 장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어누이티는 평생 연금 계약이므로 자산이 여기에 묶이게 된다. 즉 유동성이 없어므로, 전체 자산의 일부만 어누이티에 투자해야 한다. 어누이티는 평생 일정액을 연금 식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장차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구매력 감소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래서 어누이티 이외에 인플레이션을 능가할 수 있는 투자 대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나눔이야기]

인엑투스 멤버인 박은호 씨(24·서울대 심리학과 3학년)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손수레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고물상 업주들의 모임인 전국고물상연합회에 무작정 연락했다.

손수레는 대부분 고물상이 소유하고 이를 폐지 수거 노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전국고물상연합회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할 수 있는 고물상을 찾아주기로 하면서 공동 비영리법인 설립 논의가 켜졌다.

고물상 조직을 가진 전국고물상연합회와 기업을 상대로 광고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골림’이 탄생했다. 환경부는 “공식 비영리법인인 만큼 정부가 지원할 근거도 생겼다”

며 반겼다.

‘골림’은 10월까지 법인 설립과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광진구의 한 고물상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광고판 손수레를 들여놓았다. 처음에는 ‘무료로 광고를 실어드립니다’라고 쓰인 배너를 달고 시범운영했다.

고물상의 추천을 받아 손수레를 끌고 다니게 된 노인 6명은 월 소득이 30만 원에도 못 미쳤다. 소외계층으로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이들은 광고판이 달린 손수레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웃과의 대화가 늘어난 점도 좋다고 했다. 김 씨는 “신기하다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대화하며 웃을 일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지부 소개

남가주 California



Universal Studio

Walt Disney Concert Hall

Hollywood Bowl

### 1. 동창회 설립

남가주 동창회는 1950년대 초부터 각 단과대학별로 소규모 모임을 하고 있었으며, 1960년대 말까지 거의 대다수 단과대학 단위로 동창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당시 각 단과대학 회장들이 모여 총동창회를 설립하기로 하여 1974년에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라 칭하고,故김기주(문리대)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991년 미주 동창회가 창립되면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로 명칭이 바뀌고 2016년 현재 제41대(회장:김병연, 공대)에 이르고 있다.

|         |         |      |      |     |
|---------|---------|------|------|-----|
| 1974~75 | 초대      |      | 故김기주 | 문리대 |
| 1976~79 | 제2,3,4대 | 1931 | 故오재인 | 치대  |
| 1980~81 | 제5,6대   | 1951 | 故김영기 | 공대  |
| 1982~83 | 제7,8대   | 1954 | 이기준  | 법대  |
| 1984    | 제9대     | 1938 | 故정원훈 | 상대  |
| 1985    | 제10대    | 1954 | 차중환  | 사대  |
| 1986    | 제11대    | 1946 | 故권길상 | 음대  |
| 1987    | 제12대    | 1951 | 오형원  | 의대  |
| 1988    | 제13대    | 1958 | 박상길  | 농대  |
| 1989    | 제14대    | 1951 | 임중문  | 약대  |
| 1990    | 제15대    | 1960 | 손수웅  | 수의대 |
| 1991    | 제16대    | 1959 | 신보남  | 미대  |
| 1992    | 제17대    | 1953 | 故장동호 | 공대  |
| 1993    | 제18대    | 1957 | 권혁창  | 법대  |
| 1994    | 제19대    | 1959 | 이병준  | 상대  |
| 1995    | 제20대    | 1958 | 전희택  | 의대  |
| 1996    | 제21대    | 1952 | 故박병기 | 공대  |
| 1997    | 제22대    | 1958 | 이명상  | 문리대 |
| 1998    | 제23대    | 1955 | 방석훈  | 농대  |
| 1999    | 제24대    | 1956 | 오홍조  | 치대  |
| 2000    | 제25대    | 1955 | 故서영석 | 의대  |
| 2001    | 제26대    | 1961 | 이정광  | 상대  |
| 2002    | 제27대    | 1964 | 임낙균  | 약대  |
| 2003    | 제28대    | 1964 | 곽철   | 법대  |
| 2004    | 제29대    | 1962 | 김건진  | 문리대 |
| 2005    | 제30대    | 1963 | 김영   | 수의대 |
| 2006    | 제31대    | 1961 | 노명호  | 공대  |
| 2007    | 제32대    | 1964 | 김동석  | 음대  |
| 2008    | 제33대    | 1969 | 김지영  | 사대  |
| 2009    | 제34대    | 1971 | 제영혜  | 가정대 |
| 2010    | 제35대    | 1959 | 김은충  | 상대  |
| 2011    | 제36대    | 1962 | 한중철  | 치대  |
| 2012    | 제37대    | 1969 | 서치원  | 공대  |
| 2013    | 제38대    | 1965 | 김상찬  | 문리대 |
| 2014    | 제39대    | 1970 | 이서희  | 법대  |
| 2015    | 제40대    | 1969 | 박해옥  | 간호대 |
| 2016    | 제41대    | 1968 | 김병연  | 공대  |

### 2. Cover 지역

남가주지역 동창회 초창기 때는 북으로는 중가주(Fresno) 부터 남쪽으로는 San Diego, 동쪽으로는 Nevada지역까지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San Diego와 Nevada지역을 제외한 남가주 전역을 포함하고 있다.



원로 초청 만찬(Pacific Palm Resort Hotel, 10/29/16)



| 입학년도      | 동문수  | (%)    |
|-----------|------|--------|
| 1940~1949 | 50   | 2.0%   |
| 1950~1959 | 854  | 33.5%  |
| 1960~1969 | 869  | 34.1%  |
| 1970~1979 | 394  | 15.4%  |
| 1980~1989 | 239  | 9.4%   |
| 1990~1999 | 116  | 4.5%   |
| 2000~2016 | 30   | 1.2%   |
| 합계        | 2552 | 100.0% |

### 3.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                        |           |
|------------------------|-----------|
| ❖ 남가주 동문 총 수           | 2,552명    |
| ❖ Email 확보 동문 수        | 1,417명    |
| ❖ 주소 확인 동문 수           | 2,386 명   |
| ❖ 전화연락 가능한 동문 수        | 1,605 명   |
| ❖ 주소가 같은 동문 수          | 510명      |
| ❖ 신년총회 때 모이는 동문 수      | 300여명     |
| ❖ 원로선배 오찬 모임           | 300여명     |
| ❖ 골프대회                 | 80~150명   |
| ❖ Mammoth Lakes 가족 캠핑  | 200~250 명 |
| ❖ Hollywood Bowl 가족의 날 | 300 명     |
| ❖ 동문 음악회               | 500여명     |

### 4.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

|       |                                                                                                                           |
|-------|---------------------------------------------------------------------------------------------------------------------------|
| 1월 1일 | 새벽 신년 해돋이 모임을 시작으로                                                                                                        |
| 2 월초  | 신년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 3월    | 역대 회장단 골프대회                                                                                                               |
| 4월    | 총동창회 춘계골프 대회 및 관악연대 커피프라이즈 음악공연                                                                                           |
| 5 월   | 동창회 기금마련 미대 전시회/미술품 경매                                                                                                    |
| 6월    | 성낙인 총장 강연                                                                                                                 |
| 8 월   |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및 음악회                                                                                                |
| 9월 초  | Mammoth Lakes 가족 Camping, 음대정기연주회 및 미대전시회                                                                                 |
| 10월   | 원로선배 초청오찬                                                                                                                 |
| 11월   | 기부자 및 후원자 감사만찬                                                                                                            |
| 12월   | 서울대학교 개교70주년 기념 모교 국악과 초청연주회 등이 있으며 산악 등반동우회, 산악자전거(헬빅지), 서예반, 영화감상반 (Cine Club), 남만산책교실,바독클럽, Winery Club등 동우회 매주 활발히 활동 |

### 5. 동문들의 삶의 모습들 (연령 분포, 직업, 취미, 사회봉사, 교육 등)

남가주 동문들의 50~60년대 학번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입학년도는 1966년이고, 그에 대한 입학년도 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Disney Land

Cal Tech

LACMA

Griffith 천문대

Edward 공군기지

자연사 박물관

- 있는 LA 자연사 박물관
- LA 동물원 • LA 식물원
- LA 마라톤의 출발점이기도 한 Dodger's Stadium 야구장등이 있다.

### 8.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10여년 전 통계에 의하면 남가주 동창들의 수가 약 2,000명, 평균 입학년도는 1965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총 2,500명에 평균 입학년도가 1966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10년 동안에 동창회가 숫적으로 25% 늘었지만 평균 동창회가 점차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10년 전에 평균 나이가 60세였다면 현재 동창회 평균 나이가 70세인 셈이다. 따라서 젊은 층의 참여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9. 미주총동창회 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동창회 명부 및 정보관리에 있어서 미주 총동창회와 각 지부 간에 긴밀한 정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Internet을 통하여 각자 쉽게 본인의 주소 정보를 update하고 이를 각 지부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10.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가주 지부에서도 두 위원회의 회칙에 따른 활성화에 찬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한다.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안배와 각 지부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시행규칙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1. 기타, 하고 싶은 말

미주동창회보의 내용이 가치가 있고, 이를 통하여 많은 식견도 넓히고 있다. 또한 각 지역과 분야별 시사를 접할 수 있어서, 보관하기 좋은 월간지 형태의 책자로 발행하면 좋겠다.

글: 김병연 회장/ 홍선례 문화위원장

|         |            |              |
|---------|------------|--------------|
| 임원진:    |            |              |
| 총동창회장   | 김병연 (공 68) | 213-923-0907 |
| 수석부회장   | 성주경 (상 68) | 213-500-7977 |
| 총무국장    | 민일기 (약 69) | 562-547-2110 |
| 재무국장    | 차기민 (공 86) | 714-224-8015 |
| 사업국장    | 홍성선 (약 72) | 323-422-8181 |
| 행사위원장   | 이학진 (농 71) | 213-434-0033 |
| 문화위원장   | 홍선례 (음 70) | 213-503-6964 |
| 사기      | 한석란 (미 71) | 213-785-1121 |
| IT위원장   | 조무상 (법 70) | 818-288-7346 |
| 대외협력위원장 | 김인중 (농 74) | 213-435-1974 |



관악연대



동문합창단



헬리콥터 동문들



미대작가들



Cine Club



Bike Club



국악공연자



신년 해돋이





## 뉴욕 : 뉴욕지역 동창회 2016 송년회 및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도명)가 지난 12월 11일 저녁, 뉴욕 근교 후러싱 대 동원회장에서 개교 70주년기념 음악회 및 2016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곳은 날씨에도 120여명의 많은 동문이 부부로 참석하여 동창회가 마련한 기

념 음악회를 즐기며, 모교 개교 70주년을 자축하고, 선 후배간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되었다.

내빈으로는 정인식 골든 클럽 회장, 손

재옥 미주 총동창회 회장, 이성숙 미주 총 동창회 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민준기 제37대 회장과 김광호 제37대 이사장이 동창회에 봉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7명 동문유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개교 70주년 음악회에는 한예진(음대 01), 장현주(음대 02), 조원진(음대 03), 조현호(음대 05), 김현정(음대 08), 박진희(음대 09), 박예린(음대 10) 동문이 출연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 워싱턴 DC

워싱턴 지역 동창회는 지난 11월 (일) 오후 6시 Vienna에 위치한 The Westin Tysons Corner에 송년 잔치를 가졌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부에 임시 총회를 열어 지난 6개월 동안의 동창회 활동 및 재정 보고, 장학생 수여식과 함께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올해에도 6명 동문 및 동문 자녀를 선발하여 한의생 (수의 60) 장

학위원장이 각각 \$1,000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Johns Hopkins에서 박사과정에 있고 지난 4년 동안 동문장학금을 받고 있는 이지현 (인문대 00학번) 동문이 대표로 감사 인사와 수상 소감을 말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신 장경대 전 회장과 6명의 장학금 기부자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새 장학위원장 선출이 논의되었으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위원장을 모색할 때까

지 한 위원장이 계속 맡아주시기로 하였다.

단체사진 촬영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가까이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동기들과 선후배들과의 즐거운 담소가 이어졌다.

2부 순서에는 다양한 게임과 퀴즈, 래플 등을 통해 풍성한 선물과 상품들이 나눠졌고, 선후배가 짝이 되어 30여명이 간단한 댄스를 함께 하는 시간은 즐

거운 웃음이 만찬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훈훈한 시간이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2000대 학번 동문가족들이 2-3가정 있었고, 80%가 아크로폴리스 세대로 구성된 임원단들이 행사와 순서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와 송년파티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 세대간의 균형이 잘 맞춰진 2016년 송년잔치였다.

한정민 (가정대 87) 편집위원

## 휴스턴



휴스턴 동창회(회장 최인섭, 공대 75)가 연말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타운내 명소인 Hilton Westchase Hotel, Westwind Ballroom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져 진행됐는데, 12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여 근래 최대 규모의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

1부 순서는 관현악단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오픈 바와 3코스 디너가 준비되었고, 1부 말미에는 조시호(문리대 59) 초대 이사장의 회수(77세) 축하 행사가 있었다. 이날 모임의 예산은 조 초대이사장이 전액 지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창회에서는 가족사진 액자와 회수기념 은수저 세트를 증정하였다.

2부 정기총회 순서에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김동수(의대 61) 이사장과 최인섭(공대 75) 동창회장의 퇴임인사가 있었으며, 직전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진현(의대 67) 신임 이사장의 인사, 차기 동창회장(구자동, 경영 77)의 선출 및 2016년 동창회 사업 및 재무보고가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조시호 초대 이사장이 32년간의 휴스턴 동창회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동창회 발전 기여자에 대한 조 초대이사장의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3부 순서로 노래자랑이 이어졌는데 많은 동문들이 주옥같은 노래를 준비하여 멋진 댄스와 함께 즐거운 여흥시간을 가졌고, 말미에 인기상, 대상의 수여와 헌상 추첨으로 2016년을 마감하는 송년모임은 아쉽게 끝을 맺었다.

구자동 (상대 77, 현 부회장)

## 하와이



지난 12월 11일 Waikiki Resort Hotel에서 총회겸 송년회로 19명의 회원이 모였습니다.

식사후 돌아가며 한해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따뜻하고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새로 이주하신 최태식 동문을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고, 본교 교환

학생 자격으로 잠시 하와이대학에서 공부하는 이상민 동문도 참석하였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토의후, 흥겨운 퀴즈시간을 통해 느티나무가 서울대학교 나무이고, 백악이 서울대학교 상징 새라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어 교가제창과 사진촬영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 플로리다



지난 12월 19일 김중권 동문님 덕에 플로리다지부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신임 회장과 부회장으로 다음의 분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조동건 동문 (공대 69)  
부회장: 정치영 동문 (법대 )

더구나 손재옥 총동창회 회장님이 참석해주셔서 동창회 모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모임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본인 소개와 손재옥 회장님 인사가 있었으며, 본교 '만만한 기부' 캠페인에 대한 안내와 동참을 부탁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또한 내년도 신임 회장과 부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2부는 노래 실력을 뽐내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로리다지부는 항구적인 거주자들보다 주로 snow birds로 알려진 분들이 주를 이루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총 28명이 참석했는데 플로리다지부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 워싱턴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마지막은 식당으로 바뀌, 단체 방을 예약하여 송년 행사를 하였는데, 다들 분위기와 서빙도 좋았고, 음식과 와인도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 해에는 유난히도 사람이 많아서, 벨뷰 스퀘어에도, 그 인근 길도, 사람으로 차로 모두 다 꽉 차서 동문회 회원들께서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결국 8시나 되어서야 저녁을 시작하는 바람에 송년회가 1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부랴 부랴, 회장 총회보고 인사, 신임회원 소개, 등산회보고, 회계보고, 감사보

고를 하였고, 2부 순서로 젓가락으로 합심하여 쿠키 높이 쌓기, 젓가락으로 사탕 전달하기, 눈가리고 내남편 찾기 게임도 하면서, 배를 잡고 웃는 시간을 가졌고 단체 댄스 두가지를 배우며 마무리 하였던 즐거운 사진을 봅니다.

하주홍 회장님은 준비하시느라고 몸살이 나셨고, 불편한 몸에도, 회계로 나와서 수고해준 정태환 후배에게 감사하고, 음악과 장치, 댄스를 준비해주신 이명자, 이제선 선배님께도 감사하고, 준비위원으로 모여서 게임과 댄스를 준비해주신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남가주 : 음대동창회



지난 12월 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ROTEX Hotel Banquet Room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서정화(음대 80)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교가 제창이 있었다. 이어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오늘 음대 송년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동창회 각종 행사에서 음대 동문들의 연주는 항상 자리를 빛내 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음대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영란(음대 75) 회장의 인사와 사업보고 및 재무보고가 있었으며, 신임 회장에는 최명용(음대 64) 동문이 선출되었다. 최명용 동문은 인사말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음대 동문들 모두 화합하여 즐거운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점심 식사 후에

소음악회가 열렸다.

제갈소망(음대 02) 동문이 “Chopin 의 Polonaise in A-flat Major, Heroic” (영웅폴로네이즈)과 Christmas Carol Medley”를 연주하였고, 김원선(음대 04) 동문은 “Offenbach 의 Les larmes de Jacqueline”(자클린의 눈물)과 “Foster 의 Swanee River”를 연주하여 그 완숙한 연주에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다. “포스터의 스와니강”은 원제는 “The old Folk at Home”이며 스와니강을 그린 작품인데 후에 플로리다주의 주가(州歌)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경품 1등상은 김창무(음대 53, 전 음대회장) 동문에게 돌아 갔고, 특등상은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이 제공한 TABLET이었는데, 박인욱(음대 66) 동문이 행운의 당첨이 되었다. 모인 동문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졌다.

글: 홍선례(음대70) 편집위원

## 남가주 : 공대동창회



지난 12월 9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PARKVIEW Gallery(작가의 집)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양민(공대 77)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가 제창으로 시작해 권국원(공대 69)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올 한 해 여러 분들의 협조로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어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공대 동창회를 기반으로 제가 총동창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대 동창회는 인원수가 남가주 총동창회 전체 인원수의 13%인데, 공대에서 후원한 금액은 금년도 총동창회 예산의 20%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대가 전체 평균의 1.5배 이상의 역할을 발휘하여 주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권국원 회장의 사업보고와 재무보고가 있었다. 신임 회장에는 한효동(공대 58) 동문이 선출되었는데, 인사

말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행복을 가꾸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국원 회장이 김영도(공대 67) 전 회장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단체사진 촬영이 있은 후, 저녁 식사로 이어졌다.

2부 순서는 김명주(Mrs. 권국원)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유머와 재치 있는 사회로 퀴즈와 게임 등을 진행하여 모두를 즐겁게 하였다.

다음 경품 추첨에서는 공대 동창회에서 제공한 한국 왕복권 비행기표를 정황(공대 64) 동문이 특등상으로 받았다. 1등상에는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이 제공한 삼성 TABLET이었는데, 강희창(공대 57) 동문이 당첨되었다. 이날 준비한 선물이 많아서 참석한 모든 동문들은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기뻐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나와서 함께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글: 홍선례(음대70) 편집위원





### 뉴욕 양군식 동문 자선음악회

뉴욕지부 음대동창회장인 양군식(음대 82) 동문이 12월 18일 멕시코 Champoton 의 한인 후예들과 현지 어린이들의 학교 건립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뉴욕 효신교회에서 가졌다.

1900년 초 구한말 시절 어려움과 빈곤

길(음대 64) 동문과 같이 부른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떠나는 조국을 그리는 감동을 남겼다.

양 동문은 뉴욕지부 음대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광복 70주년 음악회를 주관했으며, 15명으로 구성된 엘립 크리스찬밴드의 지휘자로 활동하며 뉴저지 챔버오케스트라와의 정기적인 연주회와 여러 교포사회의 음악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음악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음악을 통해 봉사하고 있다. 허유선(가정 83) 편집위원



### 홈 콘서트, 김영 동문택에서

11월 18일 2016년 금요일, 동문 음악 애호가들에게 live music을 선사하기 위해 김영(수의대 63)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택에서 남가주 음대 동문회(회장 서양란)와 합동으로 지난 60여명의 음악팬들을 모시고 제2회 두번째 홈 콘서트 공연을 가졌습니다.

피아노 콩쿠르에서 여러번 우승과 입상의 경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제갈소망(Eine Kleine Nachtmusik, KV 525, Fantasy in D Minor, KV397), 소프라노에 오페라 가수 박소영, 최정원, 바리톤에 David Castillo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Magic Flute, Marriage of Figaro, Don Giovanni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열창하여 참석하신 팬들에게 잊을수 없는 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종일관 팬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진행된 모차르트의 밤 공연은 피아노에 국제



홈서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musical venue 입니다. 음악가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음악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음악가를 위한 장학기금의 마련의 가능성도 타진하기 위해서 이 홈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프라노 박소영은 음대 수석 졸업생일뿐 아니라 벌써 많은 오페라에 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Plasio Do-mingo가 아끼는 가수입니다. 2017 년 2월말과 3월초 L A Opera 에서 Mozart 의 오페라 "The Abduction from the Seraglio"의 주역의 하나로 출연합니다.

또한, 제1회 첫 공연은 지난 6-18-2016에 가졌으며 출연진은 제갈소망 Piano 김원선 cello 조혜성 Flute의 연주로 제 2회 연주회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아주 매혹적인 선율로 청취하신 분들에게 잊을수 없는 아늑한 분위기의 음악회로 지속적인 연주회를 가짐에 많은 찬사를 받음으로 대 성공적인 연주회였습니다.

## 조태열 신임 유엔 대사 부임, 오준 대사 후임으로

“유엔에서 다자외교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조명받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일 부임한 조태열(법대74) 신임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23일 맨해튼에 있는 더 큰집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7년 만에 다자간 외교 무대에 다시 와 보니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반기문 사무총장 이임 후 첫 한국대사로 홀로서기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반 총장이 닦아 놓은 기반을 토대로 한국의 역



### 한테라 동문 첫 사회참여 앨범 발매 ‘Seoul 2016’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가야금 연주자 한테라(음대 00)동문이 음반 ‘Seoul 2016 (부제: 12월 10일)’을 출판했다. 음반에는 12월 10일 7자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음성담은 최순실게이트를 은유한 한테라의 자작곡들이 담겨있다.

EP 미니 앨범으로 한테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듣기가 실시되며, 네이버뮤직, 아이튠즈, 구글 플레이 등 국내 및 해외에 전격 배포되었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하야송’ 등의 곡이 포함된 이번 음반은 한씨의 첫 사회 참여 음반이다. 음반 ‘12월10일’에는 축제같은 평화의 촛불 집회 현장을 담는다. 한 동문은 자신이 작곡한 작품에 가야금, 전자음악 등과 함께 12월10일 7자 촛불집회의 현장 소리도 삽입했다. 그동안의 가야금 연주곡에는 없던 새로운 형식의 현대적이며 사실 기록적인 음악이다. 또한 촛불집회 현장 영상과 함께 뮤직비디오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 나눔위원회

본 미주동창회의 설립 목적중의 하나인 나눔과 봉사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동창회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새로 조직되는 '나눔위원회'에 위원(director)으로 참여하

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동창회 사무국 general@snuaa.org 로 자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대74)

##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금 수여



뉴욕 지역 동창회(회장: 김도명)의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창수)에서는 지난 12월 11일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개최된 2016년 송년회에서 2016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학과 졸업 연도 및 재학중인 대학원이다: 최동호 (공대00, 러거스대 박사 과정), 박관핵 (미대08, 컬럼비아대 박사 과정), 조형호 (음대09, 마네스 음대 대학원 과정), 김민형 (의대11, 코넬 의대 석사 과정).

미 북동부에 위치한 여러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중인 모교 출신의 동문 4 명을 선발해서 2500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 본 수여식에서 김창수 장학위원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인사말 중 지난 10여년간 본 장학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장학기금의 현재 잔고가 12만 4000 달러에 이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온 성기로 전임 장학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이에 참석자 전원이 박수 갈채를 보냈다. 다음은 이 날 장학금을 수여한 동문의 출신 대학교 졸업 연도 및 재학중인 대학원이다: 최동호 (공대00, 러거스대 박사 과정), 박관핵 (미대08, 컬럼비아대 박사 과정), 조형호 (음대09, 마네스 음대 대학원 과정), 김민형 (의대11, 코넬 의대 석사 과정).

한편 장학금 지원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아래의 세 동문은 본 장학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Encouragement Gift로 500 달러씩 지급 받았다. 이들도 송년 파티에 전원 참석하여 선배 동문들과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사회대 09, 맨해튼 음대 석사 과정), 김현정 (음대 14, 뉴욕대 박사 과정), 박예린 (음대 14, 맨해튼 음대 석사 과정)

글 : 김창수 장학위원장 겸 논설위원, 사진 : 김원영 뉴욕지부 IT위원장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금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의대 2011졸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다가가고 싶고, 다른 장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척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에서 Healthcare Informatics PhD 학위 논문으로 MYCIN이라는 항균제의 종류와 용량을 계산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니, 그 역사는 꽤 오래된 분야입니다. 의료정보학은 컴퓨터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의 의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들을 기계에 맡기면, 의사들은 환자들과 소통하고 진찰하는 인간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모교에서는 의대 연건캠퍼스가 따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캠퍼스 내에서도 의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자연과학동과 공학동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학 교육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Weill Cornell은 의대 자체적으로 Computer Science PhD 및 Biomedical Informatics PhD 출신 교수님들이 여러 명 계시고, Cornell Tech Manhattan Campus에서 컴퓨터공학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공부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교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하게 발전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노력하시는 선배님들과 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시는 선배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모교 출신으로서는 한계를 갖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제가 공부하는 의료정보학은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 부족한 의료정보학 분야를 발전시킬 학자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하탄에 있는 school housing에서 roommate와 함께 생활을 함에도 그 생활비는 제가 공중보건의사대 받은 봉급과 학교에서 지급받는 Research Aide로 감당로 미래의 의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제 공부 는 미국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공부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베풀어주시는 장학금은 제가 유학 공부에 전념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자로 성장하는 데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형 올림.

## 미주동창회 15대(차차기) 회장 후보 소개

미주총동창회 인선위원회는 다음의 세 동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5대(차차기) 동창회장 후보로 추천했음을 공표합니다.

인선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12대 회장)

|                                                                                                             |                                                                                                              |                                                                                                             |
|-------------------------------------------------------------------------------------------------------------|--------------------------------------------------------------------------------------------------------------|-------------------------------------------------------------------------------------------------------------|
|  <b>김창수</b> (약대 64) 뉴욕 |  <b>이서희</b> (법대 70) 남가주 |  <b>신응남</b> (농대 71) 뉴욕 |
| <b>동창회활동</b><br>현 평의원/동창회보 논설위원<br>현 뉴욕 장학위원장/약대동창회 이사장<br>전 미주총동창회 감사/뉴욕동창회 회장                             | <b>현평의원</b><br>전 남가주동창회 회장                                                                                   | <b>현 평의원</b><br>현 뉴욕 장학부위원장/동창회 이사<br>전 뉴욕 동창회 회장/부회장                                                       |
| <b>직업(Career)</b><br>CPA 30년 뉴욕에서 개업                                                                        | <b>무역업, 전 남가주 평통회장</b>                                                                                       | <b>변호사 개업</b> 뉴욕/뉴저지/연방법원                                                                                   |
| <b>추천사</b><br>뉴욕동창회를 위해 여러해에 걸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현재 장학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 <b>남가주동창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여러분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b>                                                              | <b>뉴욕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고 부부동문으로 총동창회와 동창회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b>                                               |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나는 딱 좌우명을 갖고 살아온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고등학교때 교장이셨던 고 김원규 선생님의 “어디서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왔다고는 생각한다.

내가 45여년전 은행가(Banker)로서의 생애(Career)에 첫 발을 내디딜때만 해도 한국인 은행가(Korean Banker)는 물론, 한국계 은행(Korean Bank)도 이곳 남가주에는 없던 볼모지 상태였다.

한인 이민초창기, 한인 교포은행 설립에 도움을 주고 또 근무했었다.

나의 희소가지가 때를 잘 만나 나를 필요로 하는 미국은행들이 많아 신바람나서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교포 및 교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교포사회(Korean Community)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미국 주류은행및 사회에 소개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 일인자였다고 자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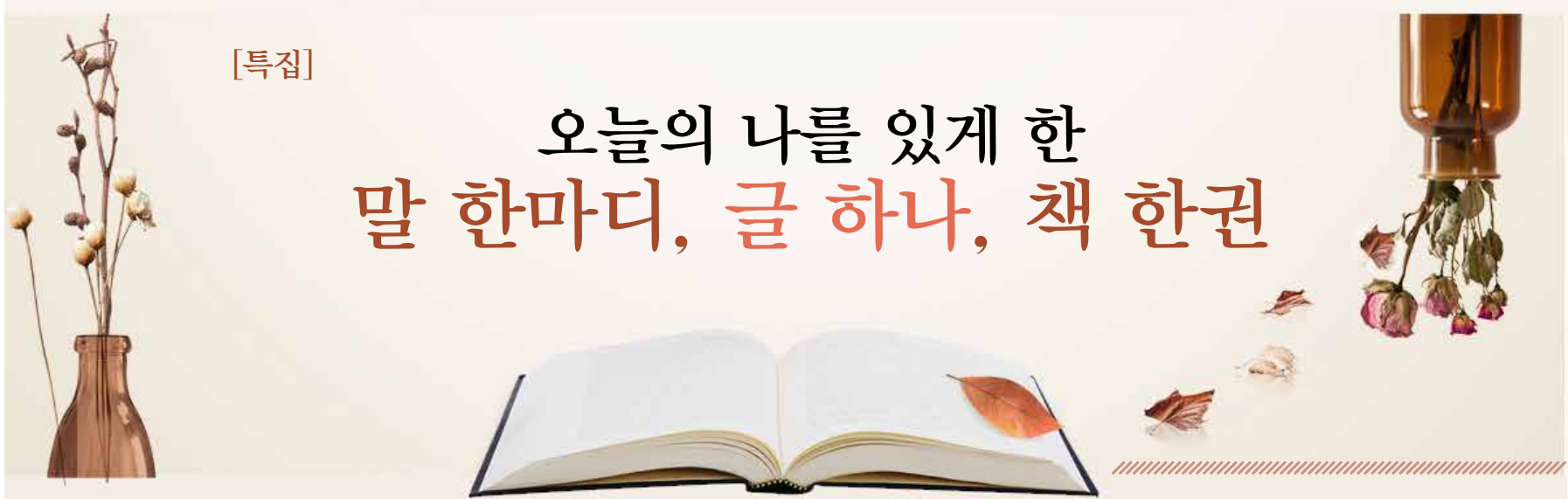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올드타이머(Old Timer)인 나에게 2002년 남가주 한인상공회의소에서 CEO of the Year란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었고 때를 같이하여 시와 주정부로부터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제 기라성같은 한국계 교포은행들과 1.5세대, 2세대 은행가들의 활약이 눈부신 이때, 내가 꼭 그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상념에 잠겨본다.

김영덕(범대 58)

이것 또한 지나 가리라!  
1956년의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의 수업시간에,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도, 나중에 자라서,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을 때...

이상봉 (문리대 65)



[특집]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말 한마디, 글 하나, 책 한권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권의 책

괴테가 그의 나이 24세에 쓰기 시작해 82세에 마쳤다는, 58년에 걸친 희곡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하는 마지막 독백 “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를 나는 내 나이 23세에 시작해 80세에 마치는, 57년에 걸친 나의 신곡(神曲)이 아닌 인곡(人曲)인 ‘코스모스 시리즈’를 나의 독백 “아, 코스모스, 넌 정말 아름답구나!”로 끝맺는다.

1959년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의 첫사랑 ‘코스모스’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단테의 ‘신곡(神曲)’에 대한 답례로 바치는 이 ‘코스모스 시리즈’는 1961년 2월초 마지막으로 만나 보고 헤어진 후 지난 55여년 동안 날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쓰게 된 것으로 10여권의 이 책들을 내 생전에 코스모스님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다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인지 기적처럼 여러 해를 두고 찾아온 코스모스님의 소재를 지난 9월에야 비로서 알게 되어 내 책들을 우송해드렸다. 이

것만으로도 내 평생소원이 이루어진 셈이고 내 책들을 읽어주셨다는 짧은 한마디 답장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 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회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이태상 (문리대 55)

### 만화가 신동헌 씨의 공상 과학 만화 “우주 왕자”

나는 어릴 적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어느 시골의 먼 인척 집에서 식객으로 몇 년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곳은 너무나 후미진 곳이라서 책이나 신문 등은 면사무소이나 가야 구경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내가 없혀살던 집 아들이 도시에 나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오는 “學園”이라는 학생 잡지 덕에 나는 그래도 문화란 것에 접하고 살 수 있었다. 그 잡지에 신동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 “우주 왕자”라는 공상과학 만화가 연재된 적이 있었다.



아오고.. 끝에 가서 달에 착륙했던 지구의 두 나라 우주인들끼리 달의 영토권을 놓고 터격대격하다가 양쪽이 절멸했다는 한심한 소식을 지구인이 아닌 화성인들이 작별인사 삼아 지구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 만화는 그 후 내가 크게 대성은 못했을 망정 그래도 자연과학이라는 것과 인연을 맺으면서 평생을 엔지니어라는 직업으로 살게 된,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되어 주었다.

훗날 이 신동헌 화백이 경기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는 것을 어느 선배로부터 들었을 때 이 만화의 풍부한 내용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들었든 그때 당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성탄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석호 (공대 66)

## 우주항공의 영웅, 한국전 참전용사 존 글렌



이경화 (공대 56)

1962년 머큐리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프렌드쉽7호를 타고 지구를3바퀴를 돌고 귀환해서 미국 최초의 지구 궤도를 순회한 우주인으로 알려졌고 후에 정치에 입문해 오하이오 주 대표로 미국 상원의원으로 24년간 일했던 존 글렌이 95세를 일기로 지난 12월8일 목요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의 풀 네임(Full name)은 존 허셸 글렌 주니어(John Herschel Glenn, Jr.)이다. 그는 남달리 두가지 경력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물이다. 우주 비행사의 경력과 정치가의 경력, 성격이 전혀 다른 두가지 경력을 모두 멋지게 장식하고 생을 마감했다.

존 글렌이 우주 비행사가 되기 전에는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 파일럿으로 복무했고 이어 테스트 파일럿으로 복무하였고 이 기간중에 최단시간(3시간23분) 미 대륙 횡단 무작복 비행 기록도 수립했다. 1957년 미국 항공 우주국 NASA의 “머큐리7계획”에 참여해 7명의 우주인의 하나가 되어 프렌드쉽7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3번 돌고 대서양에 귀환했고 NASA에서 퇴직한뒤 1974년 오하이오주 대표 상원위원으로 당선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4년동안 상원의원으로 정치인의 경력을 쌓았다. 잘 나가던 그의 경력에서 단 한가지 차질이 있었다면 198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받고자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의 긴 정치 경력을 마감할 때에 이르러 1998년 7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주인으로 돌아가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STS-95)를 탑승해서 최연로 우주인 기록도 세우는 영광을 얻었다. 컬럼버스의 공황이름이 존 글렌 국제공황이라고 지어지고 클리브랜드에 있는 NASA연구소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공립학교 이름이 존 글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을 보면 그는 미국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MiG-15제트 전투기가 투입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군은 F-86 세이버(Sabre) 제트 전투기를 투입했는데 존 글렌은 다시 세이버 제트 전투기 파일럿으로 재 배치되어MiG전투기를 대항해서 싸워야 했다. 세이버 제트 파일럿으로 27회의 출격임무를 수행했고 공중전에서 MiG전투기 3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세웠다. 1952년 6월 휴전이 지연되고 있을 즈음 압록강 수공 수력발전소 폭격 작전이 미 공군과 함께 대대적으로 치러졌는데 여기에도 존 글렌의 해병 비행 대대가 일럿으로 한국전에 다시 참전하게 되었다. 포항에 기지를 두고 1950년 12월7일 작전을 개시한 VMF-311해병공격 비행대대 소속으로 F9F 판다 (Pantha)제트 전투기 파일럿으로 참전한 것이다. 존 글렌은 해병대 지상군 엄호를 위해 63회의 출격을 했다. 이 당시 존 글렌은 두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번은 저공 비행시에 대공 사격을 받아 흉탄을 뒤집어 썼으나 다행히 엔진에는 이상이 없어 무사히 기지까지 되돌아 올 수는 있었다. 착륙후에 기체를 점검해보니 기체와 날개에 총구멍이 200개가 넘게 나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친구 파일럿으로 테드 윌리엄스의 얘기도 잘 알려져 있다. 테드

한국인에게 존 글렌은 최초의 지구 궤도를 돌고 온 우주인으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같다. 그가 해병대 전투 항공대에 소속으로 2차대전에 참전하여 마셜제도 전투에 투입되어 F4U Corsair 함도 탑재기 파일럿으로 공을 세웠고 1950년 6.25한국전이 터지자 전투기 파일럿으로 한국전에 다시 참전하게 되었다. 포항에 기지를 두고 1950년 12월7일 작전을 개시한 VMF-311해병공격 비행대대 소속으로 F9F 판다 (Pantha)제트 전투기 파일럿으로 참전한 것이다. 존 글렌은 해병대 지상군 엄호를 위해 63회의 출격을 했다. 이 당시 존 글렌은 두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한번은 저공 비행시에 대공 사격을 받아 흉탄을 뒤집어 썼으나 다행히 엔진에는 이상이 없어 무사히 기지까지 되돌아 올 수는 있었다. 착륙후에 기체를 점검해보니 기체와 날개에 총구멍이 200개가 넘게 나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친구 파일럿으로 테드 윌리엄스의 얘기도 잘 알려져 있다. 테드

존 글렌이 한국에 있는 기간중에 해군 신형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에 지원했는데 1954년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해군 항

공기지에 있는 해군 테스트 파일럿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신형 전투기 테스트 파일럿이 되었다. 195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까지 대륙횡단 무착륙 비행을 3시간 23분에 미치는 기록을 세웠다. 3번에 걸친 공중 급유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초음속 속도로 비행했다. 존 글렌은 오하이오 주 자기가 살던 고향 마을을 지나면서 음속 돌파할때 일어나는 소닉붐(Sonic Boom:음속 돌파 폭음)을 내어서 고향 사람을 놀라게 하고 지나갔다고 전해진다. 장난기가 많은 파일럿으로 보인다.

존 글렌이 그의 생명에 가장 위협했던 고비를 넘긴 일은 미국 우주항공국 (NASA) “머큐리7계획”에 들어가서 1957년 프렌드쉽7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돌 때였다. 지구궤도를 3번 돌았을 때 그가 탑 캡슐의 열 차폐 구조에 이상이 센서에서 감지되어 대기권 진입시에 3000도로 올라가는 표면 온도에 견뎌낼 것인지 의심되는 순간이 있었다. 다행히도 캡슐은 고온에 잘 견뎌내어 존 글렌은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지만 지상 관제팀은



가슴을 조이는 긴장의 순간을 보냈다.

존 글렌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1921년 7월 18일 오하이오 주 켄브리지 타운에서 출생했고 뉴 콘코드 타운에서 성장했다. 10살때 트럼펫을 불어서 타운의 밴드에 가담했었는데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물장병 위령 나팔로 탭스(Taps:취침 나팔 또는 위령 나팔)를 불었다. 두개의 트럼펫이 산울림처럼 주고 받는 곡으로 편곡된 탭스를 불렀다. 이때의 경험이 글렌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었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저절로 몸에 배이게 되었다고 존 글렌은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다. 어린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받는 영향이 이렇게 클 수도 있음을 볼 수있다.

그는 하늘을 난다는 것, 비행(Flight) 자체를 어려서부터 노인이 되도록 평생 좋아했다. 어린 아이 시절에는 뒷마당 잔디밭에서 양 팔을 벌리고 마치 자신이 비행기가 된 것 같은 흥분을 내면서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존 글렌의 아버지지는 여러번 얘기했다. “Godspeed, John Glenn” 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린 존 글렌은 부모에게 공항에 가보자고 졸라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것을 구경하고 오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90세가 되도록 개인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것은 곧 평생동안 비행기 사람이 지속된 것을 말해준다.

1962년 프렌드쉽7호를 타고 지구궤도를 돌고 귀환하여 뉴욕시 거리에서 환영 퍼레이드 (Ticker-tape parade)를 받았고 신하원 합동국회에 초대되어 연설을 했던 저녁, 백악관에서 오찬을 나눌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글렌에게 정계에 입문할 것을 권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NASA에서 퇴직한 뒤 1974년 존 글렌은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연거푸 재선에 당선되어 24년간 정치인으로 새로운 경력을 쌓았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는 최장기간 기록이 된다. 그가 77세 되던 해에 상원위원 퇴직 전에 다시 NASA로 부터 우주인으로 초대받아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을 타고 첫번 지구궤도를 돌 때는 5시간이 못 미쳤으나 왕복선의 경우는 9일간의 우주여행이 되었



다. 돌아옴으로 최연로 우주인의 기록도 세웠다.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는 동안 기자 회답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기자들에게 존 글렌은 말하길, “우주공간에서 내 다보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모든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을것 같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로움을 고백한 것이다. 늘 말했던대로 그는 과학과 기독교 믿음은 서로 공존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한 종교관도 그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다.

9일간의 우주 여행에서 귀환한 뒤에 존 글렌은 부인인 애니(Annie)에게 다음에 기회가 오면 부부 동반해서 우주 왕복선을 타보자고 하자, 부인 애니는 ‘나 죽고 나면 내 시체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다고 전해진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내와의 결혼 생활과 부부 사랑 역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고 한다. 73년간 부부였던 애니와의 존 사이에 자녀로 존과 캐롤린이 있다. 그의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명복을 빈다. 영리로 말한다면 “Godspeed, John Glenn” 이라고 말하고 싶다.

## 원고모집합니다

2월호 특집 주제는 '미국에 와서 배운 첫번째 교훈'입니다. 한국과 다른 문화와 정서, Culture Shock 속에서 느낀 그 무엇인가가 있을텐데 100 단어 정도로 보내주세요. 이 외에도 일반 원고 - 시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

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u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래스카:**  
**윤제중(농대 55) 회장**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을 보내면서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정유년에는 조국의 안정적 번영과 모교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문님들의 가정마다 건강을 하시고 행운이 충만하고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워싱턴주:**  
**하주홍(경영 77) 회장**  
미국 전역의 동문 여러분께 시애틀에서 인사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또 한 해의 경험과 추억을 보태는 계절입니다. 즐겁고 보람된 일과 함께 괴롭고 고되었던 일들도 모두 유익한 경험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도록 만드는 힘을 여러분 모두 잃지 않으시길,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즐겁고 보람된 일이 많아지시길 기원합니다.



**남가주:**  
**김병연(공대68) 회장**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들 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남가주 총동창회가 더욱 더 역동적이고 질적 향상, 더 많은 지역사회 봉사, 미주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



**남가주:**  
**성주경(상대 68) 차기회장**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남가주 및 미주 전체 동문님들과 그 가정에 항상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샌디에고:**  
**이정석(공대 87) 회장**  
2017년에도 변창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도 샌디에고 동문회의 멋진 전통들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건승하세요.



**하와이:**  
**성낙길(문리 77) 회장**  
미주전체 동문 한분 한분께 새해에도 일터와 가정에 사랑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네소타:**  
**황효숙(사대 65) 회장**  
“새해에는 동문 여러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어지러운 고국에도 평온이 찾아 오길 염원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한경진(상대 59) 회장**  
2017년을 맞이하여 미주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활발하고 진취적인 2017년의 총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하이오:**  
**이성우(상대 72) 회장**  
2016 년도가 벌써 다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총알같이 빨리 가는 이 하루하루가 모두 뜻깊고, 건강하고, 희망찬 귀한 하루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잉글랜드:**  
**정태영(문리 71) 회장**  
동창회 일을 맡아 보면서 가장 회원하는 것은 젊은층 동문들의 참여입니다. 어느 동문회나 공통 이슈이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식 언어, 사회 관계 문화로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그마한 유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분위기가 편해야 하니까요. 노,장,청 모두 액티브하게 동문회에 참여하길 기원합니다.



**뉴욕:**  
**김도명(농대70) 회장**  
동문 여러분, 새해에는 아주 가까워서 잊혀져 가는 친구들이 없는지 이웃들은 없는지 둘러보고 함께 새로운 사랑을 나누는 한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리의 빛만이 아닌 사람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가슴 벅찬 일들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뉴욕:**  
**이대영(문리 64) 차기회장**  
2016년도를 마감하며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좀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알차게 지내고 싶은 2017년도를 바라봅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도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어울렸던 여러 모임과 행사가 가장 보람있었고 추억에 남겨져 있습니다. 새해에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선후배와 친구들이 되어 함께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한분 한분 동문님들께서 여전히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필라델피아:**  
**최정웅(공대 64) 회장**

미주 동문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워싱턴 DC:**  
**안선미(농대 65) 회장**  
희망의 2017년을 맞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에 감사하며 새해엔 젊은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선후배가 함께 꾸려가며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아:**  
**허지영(문리 66) 동창회장**  
2017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고, 미주의 모든 동문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동창회의 복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  
**윤기향(법대 65) 회장**  
“새해에는 너무 물질을 쫓아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뒤처져 오는 영혼도 뒤돌아 보면서 한 해를 달려갔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동문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휴스턴:**  
**구자동(상대70) 회장**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2017년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일본:**  
**박태정(치대 62) 총동창회 회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문님들에게 행복한 한해를 기원합니다. 이곳 일본동창회는 한때 재일교포분들이 모국유학의 특전적 혜택을 받고 귀국한 동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완전한 인수의 과약은 불가능하지만 일본 전국에 350명 전후의 동문들이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결심있고 자랑스러운 미주동창회가 부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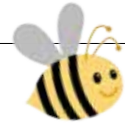


**태국:**  
**이정우(사대 64) 총동창회장**  
반갑습니다. 미주를 비롯한 전세계 SNU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이곳 태국의 SNU동창회는 30여년되었고 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미얀마:**  
**양돈호(경영 82) 회장**  
전세계에 퍼져 있는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2월 21일 발기식을 가진 미얀마 동창회는 현재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구성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벌꿀 촌지



### <잊을 수 없는 환자>



조종행 (의대 55)

기억이 좀 가물 가물하지만 매년 이맘때 즈음, 늦가을에서 초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환자가 있다.

1970 년 늦은 가을 서울대 병원 수련 시절 3-4 개월된 남자아이 가 소아과에서 전과되었다. 잦은 호흡곤란으로 소아과에 입원한 아이로 congenital lobar emphysema(선천성 폐엽 기증) 란 희귀한 선천성 폐 질환의 진단을 받고 이영균 교수께 수술을 받으려 전과된 아기 환자였다.

지금 생각하면 CT 도 없고, MRI 도 없고, 초음파도 없던 그 원시시대에 어떻게 그런 드문 병의 진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이다. 아마도 lung scan(동위원소를 이용한 폐스캔)이 처음으로 동위원소실에 도입되어 돌아가신 이장규 교수가 진단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이 아기 환자의 아버지는 한 30대 후반의 남자분으로 한여름 강원도 피악벌에 견게 탄 듯, 구릿빛 얼굴의 건강하고 순박한 분이였다.

아기는 걸째하면 호흡곤란으로 새파랗게 질리며 자지러지게 울어대어 경협없는 이 젊은 의사를 당황케 했다. 그럴 때면 옆에 있던 환아의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어주곤 했다.

“歸去來兮여(귀거래해 여),  
田園 將蕪胡 不歸오(전원장무호불귀 오)

서울에서 소위 엘리트교육만 받았다고 자부하던 나에게 강원도 촌구석에서 온 이 젊은 아빠가 나는 뜻도 모르는 도연명의 명시를 (그런 유명한 시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은채 술술 읊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놀랍고 부럽고 또 부끄러워 혼자 귀거래사를 찾아 읽어본 기억이 난다. 더 놀라운 것은 자지러질 듯 울던 아기가, 아빠가 귀거래사를 읊어주면 금방 조용히 잠에 빠져들고 췌엌 췌엌 숨 소리가 고요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곤하던 신기한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아기는 right thoracotomy(우측 개흉)그리고 upper lobectomy(폐우엽 절제술)를 받고 무사히 퇴원하였다. 의사노릇 50 년, 의사가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을 본 적이 거의 없지만, 소아과 영역에서는 가끔 이렇게 수술로 완치시킬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이 있어 의료인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한다. 아마도 이런 것이 어린 환자의 경우보다 소아과나 소아외과에서 좀 더 자주 맞볼 수 있는 매력일 것이다. 이 병은 check valve(한국어로만 열리는) 기전으로 공기가 폐엽에서 배출이 안되어 팽창, 다른 폐엽을 압박해서 생기는 드문 선천성 질환으로, 병변이 있는 폐엽만 수술로 절제해주면 완치되는 병이었다.

퇴원 몇 주 후 겨울이 왔다. 12월에 강원도는 물론 전국



에 폭설이 왔다. 수술후의 외래 진료를 위해 아기와 부모가 병원을 찾아왔다. 외국으로 들어오는 이들, 눈 덮인 강원도 산골의 강렬한 햇빛에 새파랗게 탄 아빠와 엄마의 얼굴은 흑인보다 더 검게 보였다. 엄마는 아기를 업었고 아빠는 등에 통나무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통나무 속은 벌꿀 가득한 벌집이었고, 우리는 뜻하지 않은 연말 선물로 최상의 벌꿀 선물을 받고, 나는 한겨울 벌꿀 호강을 하였다. 다음해 봄 경주에서 있었던 흉부 외과학회에서 나는 이 아기를 생각하며 선천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The Korean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대한 흉부 학회지: 5:1-6,1972)

46 년전 일이다. 새까만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고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던 아빠는 살아 있을까? 그 아기 환자는??? 요즘엔 강원도 산골 구석 구석까지 막국수집, 소주집, 문명과 물질의 침입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청년이 되었을 그 아기는 강원도 어느 산 속 깊은 곳에서 늙은 아버지 모시고 신선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자기 아기에 밤마다 귀거래사를 읊어주며...



노영일 (의대 62)

## 선물

네 뒤를 이어 신경내과 전문의로 개업을 하고있는 큰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내어 집에 왔다.내 컴퓨터를 써보더니 너무 느리다고 하며 선물로 새 컴퓨터를 하나 사주고 갔다.

새 컴퓨터를 앞에놓고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25년 전 이맘때 있었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다. 큰딸이 매사추세츠주에있는 엠허스트대학에 다닐 때 일이었다. 크리스마스 방학이 되어 학기말시험이 끝나는데로 집에 오겠다고 전화가 왔다. 일기예보를 들으니 시카고 인근에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고 한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고 하루쯤 늦게 떠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기숙사가 문을 닫아 그럴 수 없단다. 또 마침 시카고방향으로 가는 여차 동급생이 있어 태워주기로 약속을 하여 그 약속도 깰 수가 없단다. 마음이 찢찢하였으나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아빠는 괜한 걱정을 하는게 병이라며 두리러 편잔을 준다. 오는 도중 중간중간에서 전화를 하여 무사히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디애나에 들어섰다고 전화가 왔다. 이제 한 두어시간만 있으면 집에 도착하겠구나 생각하고 날씨는 어떠냐고 물어봤다. 좀 춥고 눈이 내리지만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그것이 마지막 전화였다.

세시간 네시간이 흘렀는데 오지도 않고 아무런 전화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을 때여서 딸이 휴게소나 음식점에 들어가 전화를 해야만 했고 나는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는 한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벌떡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혹시 무슨 사고나 나지 않았나. 테레비를 켜보니 지금 인디애나에는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눈에 미끄러져 대형사고가 나고 여러군데 길이 막혔단다. 길가에 미끄러져 떨어진 차량들도 즐비하나 사고가 너무 많아 고속

도로 경찰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단다. 더욱이 기온이 급강하하여 영하 십여도로 내려갈 전망이란다.

점점 비관적인 생각이 엄습해 왔다. 인디애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어린 두 여학생이 구조되지는 않았느냐? 사고자 명단에 없느냐? 그런 이름은 구조자나 사고자 명단에 없단다. 이름과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확인이 되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일리노이 순찰대에도 전화를 했다. 같은 대답이었다. 더이상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초조감이 엄습해 왔다. 같이 오는 여학생 인적사항이라도 알아둘 걸 잘못했다는 후회감이 들었다. 그 집에 전화해 공동전선이라도 뚫더라면 마음이 조금은 나직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일어났다 앉았다. 방안을 왔다 갔다 서성이기도 하며, 연신 창밖을 내다보니 함박눈은 더욱 더 실하게 퍼붓고 있었지. 나처럼적인 아내도 처음에는 뭘 눈이 오니까 좀 늦겠지 하며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봐 하더니 다섯시간 여섯시간이 지나니 초조해하는 눈치가 분명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걱정은 그에 곱배기로 깊어갔다. 새벽 두시가 되니 이제는 방정맞은 절망감마저 들었다. 차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가? 눈에 막혀 오도가지도 못하고 얼어 죽은 것은 아닌가? 병원에 전화를 해보려고 해도 어디에 건단 말인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지도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할걸. 첫번째 사립대학 등록금 수표를 쓰고나서는 눈앞이 캄캄했었다. 내평생 그렇게 큰 액수의 수표를 써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계속 등록금을 낼 것인가 계산해 해보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않게 않았다. 더구나 그 아래로 세아가 연년생으로 있

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절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쓰던 현차를 주어 태워 보냈다. 비행기값을 절약하려고 했다가 내가 이 전벌을 받는구나..

일곱 여덟시간이 지나고나니 이제는 허탈감에 빠졌다. 할수있는 것이라도 가는 기도 밖에 없었다. 그때만해도 교회라고는 건성으로 일년에 한두번 나갈 정도였다. 내 평생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본 기억이 없다. 아내나 나나 이제는 지쳐 비몽사몽간에 있었다.

“파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번개같이 전화를 받아보니 천진스러운 딸의 목소리였다. 너무나 반가워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자연인적, 인디애나 고속도로로 오는데 눈이 엄청 쏟아져 길이 안 보였단다. 커다란 트럭뒤만 따라 왔는데 그란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나가버려 가이드를 잃어버렸단다. 대강집작으로 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길옆 도랑에 처박혔단다. 하리가 넘는 눈을 헤치고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와 길옆에 오들오들 떨며 서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고속도로 순찰차가 그들을 발견하고 차에 태워 인근 모텔에 데려다 줬단다.

폭설로 모델전화가 끊어져 전화도 못하고, 우선 일은 몸을 녹힐려고 더운 샤워를 하고 잠시 누웠다가 그만 깜박 잠이 들었단다. 잠에서 깨어나 그래도 걱정을 할 것 같아서 모텔인근 가게에 나와 전화를 하는 것이란다.

원망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다만 무사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어서 모텔로 돌아가 폭 쉬고 내가 낮에 좀 따뜻해지고 눈이 멎으면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다음날 살을 에는듯한 추위를 뚫고 모텔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길가에 수없이 처박힌 차들은 좋은 구경거리였고, 활날리는 눈발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 <단상> 남과 북,상상력으로 화합하다



통일은 막연한 주제다.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은 단절에 무감각해지고, 남한이라는 지리적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불편함을 찾기 어려울 만큼 분단의 흔적은 희미해졌다.

북한에서 태어난 나는 만 13살이 되던 1999년 2월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5년을 살다가, 2003년 10월 남한에 들어왔다. 나를 북한에서 태어난 남한사람 또는 남한에 사는 북한사람이라고 불려도 다 맞는 말이다. 남북한을 살아본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분단이 현실의 영역이라면 통일은 미래의 영역이다. 불행하게도 통일을 얘기할 때 남한 주민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2016년 현재 남한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통일 한국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내일의 모습은 지금의 상상에 달려있다고 본다.

오늘날 남한의 물질적 번영과 자유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가 상상했던 미래였다. 지금의 세대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이전 세대가 무에서 이루어낸 창조물이다. 통일 후 미래가 어둡다면 그것은 우



지재원(사대 68)

추운 겨울이다. 열을 이상을 때 일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삼한 사온이 그리워진다. 적어도 사흘동안 추우면 다음날엔 따뜻한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추운 겨울은 있는 자들에게는 훈훈한 집안에 앉아 느긋하게 추위를 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추워지니 새 소리로도 자주 들리지 않고 작은 동물들도 눈에 안 띈다. 이 험한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눈에는 먹갈 잘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와 눈덮인 황량한 벌판 뿐이다. 그러나 늦은날 아침에 나가보면 그들은 아직 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나 토끼등의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나 있고 어느 동물인지 알 수 없는 큼직한 발자국도 나 있다. 아마도 겨울은 그들에게 적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처절한 계절일지도 모른다.

며칠 전이다. 불꺼진 차거운 벽난로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둘러보아도 모든 창문과 문은 닫혀 있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잠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벽난로 속에서 또 소리가 났다. 조용히 다가가서 벽난로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유리문 안을 들여다 보았다. 아무런 기척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보였다.

살짝 유리문을 툭툭 두들려 보았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또 조용해졌다. 조금 더 세게 다시 문을 두들겼다. 이번엔 무엇인가 퍼덕덕 하였다. 자세히 보니 아, 까만



새 한마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아니, 어떻게 새가 난로 속에 있던 말인가.. 그 새는 난로 안에 갇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퍼덕이고 있었다. 나는 미당이로 된 유리문을 조금 열고 장갑낀 손을 천천히 들어 밀었다.

새는 놀라서 그 좁은 벽난로 안에서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도망치며 난리를 쳤다.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콕! 잡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 다리나 날개라도 부러진다면 다 허사가 되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새에게는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재는 휘 날려서 카펫으로 날려 나갔고, 장갑과 내옷은 시커맣게 되었다. 내 얼굴은 굴뚝 소제부 얼굴이었다.

결국 새가 힘이 빠져 제대로 도망치지 못 할때 되서야 나는 새를 잡을 수 있었다. 승자로서 한마디 안할 수 없었다. “아, 아무리 출다기로서니 굴뚝에 빠지는 놈이 어디 있냐? 다음부터 조심해. 다음에 또 빠지면 참새구이 신세다...”

두려움으로 새의 작은 가슴은 팔락거리며 떨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새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집 바깥으로 나갔다. 손가락으로 새의 머리를 가만히 한번 쓰다듬어 준 뒤, 두 손으로 새를 공중으로 살짝 던졌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새는 새로운 힘이 나는지 잘 날라갔다.

추워진 나는 재빨리 따뜻한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 모교 도서관 대출책 1위는?

고의 작품이다. 30여 년간 비어있던 잡화점에 든 3명의 독자가 이곳에 있던 고민 상담 편지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올해 대출 순위 10위 안에는 소설이 4권이나 차지했다. ‘7년의 밤’(정유정),‘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요나스 요나손), ‘오베라는 남자’(프레데릭 베크만) 등은 각각 5위(121명), 6위(120명), 9위(101명)에 이름을 올렸다. 소설책이 도서관 대출 순위 1위로 오른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대출 순위 1위는 교양 수업 서적으로 주로 활용되는 ‘에우리피데스 비극’(그리스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집)이었지만 올해는 8위(108명)로 떨어졌다. 교양 수업에서 권장하는 ‘홍, 균, 쇠: 무기·병균·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재레드 다이아몬드)도 2013년과 2014년도 1위를 지켰지만 올해는 6위(120명)로 내려갔다.

올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나미야잡화점의 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대생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148명이 빌려 읽은 하가시노 장편소설 ‘나미야잡화점의 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출판된 이 책은 ‘용의자 X의 현신’ 등을 통해 일본 미스터리 소설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하가시노 게이이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순위는 교과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올해 소설책이 정상을 차지한 것은 서

울대생이 자발적으로 도서를 대여해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취업난, 스펙 전쟁 등 현실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소설 속 이상 세계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이재영 원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소설책이 현실의 답답한 측면의 돌파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없는 상상의 세계를 통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판타지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간 강세를 보이던 인문학 열풍도 계속됐다. 올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대출 목록 1~10위는 주로 소설과 인문학으로 포진했다. 2위는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고가 후미타케·기시미 이치로)이 차지했다. 서울대생 135명이 이 책을 빌려 봤다. 3위(131명)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채사장)이 올랐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이 책을 통해 ‘소통’의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4

위는 124명이 대출한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10위는 89명이 빌린 ‘서양 미술사’(에른스트 곰브리치)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인문학이 강세를 보이던 흐름은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내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인문학을 통해 탐색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제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 학생들은 예술(4만1284명) 분야 책을 가장 많이 찾았다. 문학(3만6565명), 사회과학(3만5426명)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학점, 제2외국어, 자격증 등 취업 경쟁을 뚫기 위한 스펙관리로 책을 가장 많이 찾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원장은 “학점 취득을 위한 넓고 얇은 지식”(채사장)이 올랐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이 책을 통해 ‘소통’의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4



송윤정 (인문 89)

중학교 1학년인 둘째 아이, 지현이가 며칠간 부쩍 질문이 많았다. 그 많은 질문은 궁극적으로 “\$4미만의 예산으로 네 명인 한 가족의 저녁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슨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드냐?”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대를 배우고 있는 역사과목과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배우는 과목의 합작 과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만 지혜롭게 살았느냐를 체험하기 위한 <디프레션 디너>였다.

처음엔 ‘에피타이저로 샐러드, 음료수로 딸기 스무디, 메인코스로 감자베이컨 스프, 후식으로 애플파이’를 적어두고 그로서리쇼핑을 따라나섰다가 곧 웅장이 되었다. \$4.99인 베이컨 한 팩이 그나마 \$3.99로 세일 중이어서 집어 들고는 자신은 반만 쓸테니 \$2만 내겠다고 했다. 그 리곤 감자 네 개, 게다가 세금이 더해지니 예산을 벌써 초과했다. 조미료와 물, 가스 값은 생각할 엄두도 못났다. 한 끼 저녁 요리를 한다고, 소금, 설탕, 버터 등등 은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예전에 한국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보릿고개와 어려운 시기에 먹었던 음식을 생각이 났다.

어렸을 적 밥상에서 할머니는 종종 보릿고개 얘기를 하곤 하셨다. 일제강점기와 전쟁통엔 해마다 붉은 정말 잔인한 시기였다고.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는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봄엔 산에가 풀뿌리를 뽑아 연명해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의 음식들도 시간이 지나 내가 자랄 땐 향수를 남기는 일종의 문화가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햇살이 파스한 봄날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들만에 달려나가 벼이와 쑥을 캐다가 봉지 한 가득 담아 오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엄마는 향긋한 된장국을 끓여 주시곤 했었다. 비 오는 날이면 감자와 호박을 썰어 넣은 수제비를 끓여 온 식구가 먹곤 했는데, 수제비를 먹을 때마다 엄마는 “예전엔 먹을 음식이 모자라 밀가루 반죽 한 주먹으로 많은 식구를 먹이려 수제비를 먹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 수제비가 별미 요리가 되었구나!” 하셨다.

미국도 대공황 시절 쪼들린 살림에 빵에 설탕을 발라먹은 것이 슈거토스트가 되었고, 닭발로 국물을 내어 먹고, 민들레를 뽑아 샐러드를 해 먹고, 심지에 다람쥐를 잡아먹기도 했단다. 그로부터 불과 백 년도 되지 않아,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가구당 버리는 음식이 연간 \$640에 이른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들은 환경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굶

주리는 아이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눈앞에 시커멓게 변해가는 바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또 팔라비틀어져서 버리기 전에 바나나 빵을 만들어야겠다….’

세상 모든 곳의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2010년 하이티에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다친 후, 간호사 친구가 몇 년간 그곳에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했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진흙을 빚어 파이를 구워 먹는다고. 옛그제 신문엔 핵 문제로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3월 28일자 노동신문에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하더라도 김정은을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직도 우리와 한 언어를 쓰는, 한민족 누군가의 형제자매인 이들이 여전히 풀뿌리를 씹고 연명해야 하는 현실은 언제나 먼 이야기야기가 될는지….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저녁 모임이 생겨 <디프레션 디너>를 함께 할 수 없었다. 대신 첫 아이 지호와 치료 친구, 그리고 지현이 친구 넷이서 4인 가족이 되어 디프레션 디너를 함께 했다. 다음 날, 저녁이 어땤는지 묻자, 지현이는 학교에 제출할 보고서를 내밀었다. ‘나는 디프레션 디너를 위해, 감자, 베이컨, 치즈로 만든 스프와 빵, 라임 사베트를 만들었습니다’로 시작되는 아이의 보고서는, 제법 요리사처럼 자신의 요리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곤, 다양한 재료와 많은 양의 풍성한 평상시 저녁 식사에 비해 얼마나 제한된 재료로 꼭 필요한 양만큼 요리를 하였는지 강조하였다. 그레도 자신이 만든 디저트, 라임사베트는 모두가 최고라고 인정해 준 별미였음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아이의 보고서 중, ‘빵은 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빵을 넣었을까?’하는 나의 의문에 답을 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대공황 동안, 많은 이들이 빵 공장에서 주는 무료 음식으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30년대 많은 실직자들은 그러한 무상공급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지요. 또한, 그들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어 최소한의 것으로 생존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고 한 것처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음으로써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아이에게 당부한다. 냉장고 두 대, 세 대에 음식을 가득 채워 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린 시절 배운 교훈들을 다시 일깨우며 살아가야 하리라고 스스로를 나무란다.

도로 미미했다. 이는 얇은 면 티셔츠 한 장을 더 입은 정도다. 오리털 합량이 두 배로 많으면 보온성도 두 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다운 점퍼의 보온 원리에 있다. 이 교수는 “다운 점퍼가 따뜻한 것은 오리털로 된 충전제 속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라며 “공기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온력은 높아지지만, 두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오히려 의복 내 대류가 활성화돼 열이 빠져나갈 수 있어 보온력이 더 증가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 고 서진석 박사를 추모하며

The Flower of Dandelion

You, survived from the pulling and the snapping. Your straight neck in purity, your pretty petal of the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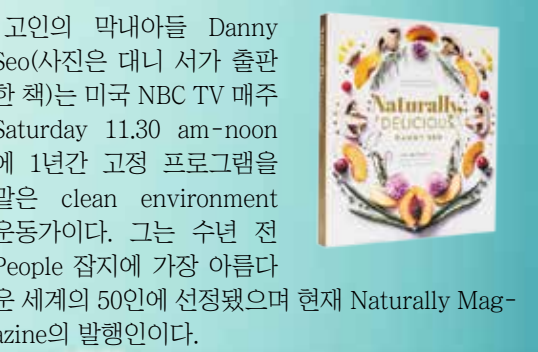
Through the night the life saver, the dew drops on your lips. You are not a wild ginseng nor rose, but you breathe alive between the crack of rocks. You, the pretty dandelion.

Your seeds that dressed in white clothes and your yellow flowers that used to stain the three thousand-li, we smell your sweat here on the foot of the Shenandoah Mountains.

Your seeds, lighter than a feather, were brought to this new land by the blowing wind and took root in the ground of America. You, the pretty dandelion, the pretty dandelion.



이 글은 2016년 11월 21일 저녁 Dr. Seo, Jin Seok(Oct. 22 1943-Nov. 18 2016, 의대 62, 사진) 의 영결식에서 낭송되었다. Davis(lawyer), Ann(educator), Danny(환경운동가) 세 자녀와 네 명의 손주들과 영어권의 여러



분들을 위하여 우리 동창회보에 전에 발표된 “민들레꽃”에 기초를 두고 쓴 것이다.



부고

김학주 동문 (농대 입산가공학 - 78학번, 워싱턴 DC) 이 12/30 (금) 오후에 별세하셔서 2017년 1월 2일 Dale City, VA의 Mountcastle Church Funeral Home 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연락처: 703-680-1234

한정민 (농대 87)

내가 누구의 전도도 없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였다. 그 당시 나는 중2때부터 서서히 시작된 사춘기의 정점을 찍으며 ‘나는 왜 사는가’란 질문의 답을 찾아 고민하며 우울함과 허무함에 짓눌려 살던 때였다. 남녀공학 중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다가 소위 ‘강남 8학군’이라 불리던 여자고등학교에서 보낸 나의 고 1 생활은 공부에 대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즐겁지가 않았다.

그런 부담과 압박으로 삶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고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란 부담감은 불안장으로 진행되었다. 학교나 밖에 나가 있을 때면 집에 불이 나는 것 같은 불안감에 1시간마다 집으로 달려가곤 했고, 밤에는 집에 도둑이 들것 같이 불안해 공부를 하다가도 손전등을 들고 문과 창문을 몇 번씩 확인하곤 했다. 지금 같으면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텐데 80년대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불안감에 눌린 회색빛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초등학교 때 두서너번 참석했던 여름성경학교와 그 때 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문득 떠오르며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날 좀 도와주세요. 견딜 수 없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란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해 1월 나는 내 발로 혼자 교회를 찾아가다. 바울과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강권적인 부름이 내게도 일어난 은혜의 순간이었었다.

그렇게 나의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다. 교

회에서 독서실을 운영했기에 나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교회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교회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10시에 독서실이 끝나면 모두 분당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해 어느 여름 날, 예전처럼 지치고 짓눌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어두운 분당에 앉아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경험을 했다.

## [IT]로보어드바이저,



그는 “컴퓨터가 잘하는 게 기억하는 것 말고 잘하는 게 또 하나 있다. 지치지 않고 일관된다는 것”이라며 “인간은 집중력이 높을 때는 잘 하지만 지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는 파괴력이 좋은 활을 썼지만 일본은 소총을 썼다”며 “술투경에 막히는 소총이 위력은 활에 비해 떨어질 수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상담공부를 마친 후 기독교 색을 띠지 않은 비영리기관에서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나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담자의 70%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작은 방에서 만나는 그들과의 나눔은 참으로 소중한 비밀의 시간이며 거룩한 만남이다.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면 주님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 세상 사람’이나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같은 긍휼함 (compassion)으로 바라보심을 느낀다. 믿지 않는 한 사람도 온 세상과 같은 무게로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

한 주에 열 몇명의 내담자들을 만나 그들의 깊은 상처와 감기감기 찢긴 아픔을 대면할 때면 ‘아!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요?’라고 절규하기도 하고 “이 지경이 될때까지 주님은 도대체 뭐하셨어요?”라고 주님께 항의하기도 했다. 처음 몇 년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반항하며 많이도 울었다. 너무 화가 났었다. 교회 모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웃으며 행복해 보였는데, 밖에 나와서 만난 세상과 사람은 왜 이리 아프고 상처가 많은지...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참 혼란스러웠다.

4년 전 나는 26년을 갇혀 있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커뮤니티로 걸어 나갔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첫 단가신교를 떠났던 것이 9년 전인 것을 비교하면,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로 걸어가는게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나는 사람들. 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교회 사람이나, 아니냐’ 혹은 ‘믿는 사람이나 아니냐’는 더 이상 질문의 여지가 되지 않음을 배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임을 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 나와서 교회를 바라보니 안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 내가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참 좋아요. 오세요’라고 말했었는데, 커뮤니티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바라보니 ‘그들에게 교회 안의 문화와 언어가 참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구나’란 생각을 하게 됐다. 예전에 내가 교회 밖의 만남들이 어색하고 편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가 그들이 걸어 들어오기 낯설고 어색한 곳이라면 이제는 교회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걸어 나가면 좋겠다.

## 독자의 광장

### “한반도의 평화조약 지금 협상 시작하라”는 최승홍 동문의 글을 읽고

한인섭 (문리 55)

최승홍 동문은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016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불필요한 핵무기

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며 지금 협상을 시작하라고 미국 새 정부에 촉구했다. 북한이 오래 전부터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자고 끈질기게 주장해 온 이유는 오직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같은 그들의 의도는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4차 평화회담 (남북한, 미국, 중국)에서 여실

(전 VOA, RFA 한국어방송국장)





이현림 (음대 81)

[음악]

## 베토벤, 그의 절망, 사랑, 그리고 행복

“아, 인생을 천번이라도 살고 싶다”

신이 인간에게 한 일 중 만약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생각해 내시겠습니까? 작가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류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베토벤에게서 청력을 뺏아간 일이다.”

그를 보면 이름은 참 잘 짓고 볼 일이라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토벤이란 이름은 덩굴밭이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름 때문인지 그의 인생이나 그의 헤어스타일이나 험한 가시 덩굴로 뒤덮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음악가 중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불행하고, 불운하고, 슬펐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들을 초월하듯 빛어진 그의 음악의 깊이는 모든 이로 하여금 가슴속으로 슬픔과 기쁨과 한희의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성’이라 불리우는 것이겠지요.

1770년 태어난 그는 호감가는 용모도 못 가진, 평범한 부모나 환경과도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술 주정꾼인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모차르트같은 신동으로 만들어 돈을 벌어볼까 하고 어릴 때부터 밤낮으로 가두고 매질을 해가며 피아노 연습을 시켰죠. 나이까지 어리게 속여 연주회를 열었지만 앞서 태어난 모차르트가 위나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불운하게도 베토벤은 주목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때문에 열 한살 땀 학교까지 그만 두야 했던 학구열 높은 꼬마 베토벤은 짧은 지식을 만회하려 혼자 애써야 했죠. 마침내 청년이 되어 빈에서 피아니스트의 최고봉에 오르고, 작곡가로 한창 활동을 하며 인정받나 싶더니 점점 어두워져가는 귀는 급격히 나빠져 그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극단적인 고통과 절망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피아노도, 작곡도, 지휘봉도 다 내려 놓은 그는 자살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2세 때 완전히 귀가 안들리자 그는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로 잘 알려진 편지를 두 남동생에게 썼습니다.

“.....난 너희에게 작별을 고한다. 어느정도로 귀가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희망마저 없고 말았어.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듯 나의 희망도 시들어 떨어졌다.....”

정말 하나님은 베토벤에게 고통밖에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보입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은 자신이 죽는 대신 이런 고난의 운명의 묵을 줄라 이긴 그의 승리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Romance in F major” 라는 곡은 그가 자살하려던 그 해에 작곡되었습니 다. 줄리아니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귀도 먹어 죽음을 선택한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자신의 감정을 승화 시켰을까요. 이 곡을 들으면 그 아름다운 속에 슬픔이 보여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명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또한 베토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것 같죠. 비록 적막의 감옥속에 갇혀 있어도 그는 사랑도 당당히 얻으려 했습니다. 베토벤은 외

모 콤플렉스가 있어 예쁜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의 결혼 늘 여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사랑이 싹 틀 때마다 명곡이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여자를 평생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사랑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로부터는 좌절감 밖에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서랍속에서 발견된, 연도 없이 낱짜밖에 써지지 않은 부치지 않은 세통의 편지속에는 열렬하고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가 담겨있는데, 그 여인을 그는 ‘immortal beloved’ 라고 불렀습니다. 편지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안녕,  
천만에속에 있지만  
성상은 온통 당신에게 가 있지요.  
나의 불멸의 연인이여  
대부분 즐겁고 때론 슬프고...  
라센 운명이 우리의 말을 들어 줄지  
걱정이에요.  
오! 하나님,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왜 우린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내일로 당신에 대한  
동경과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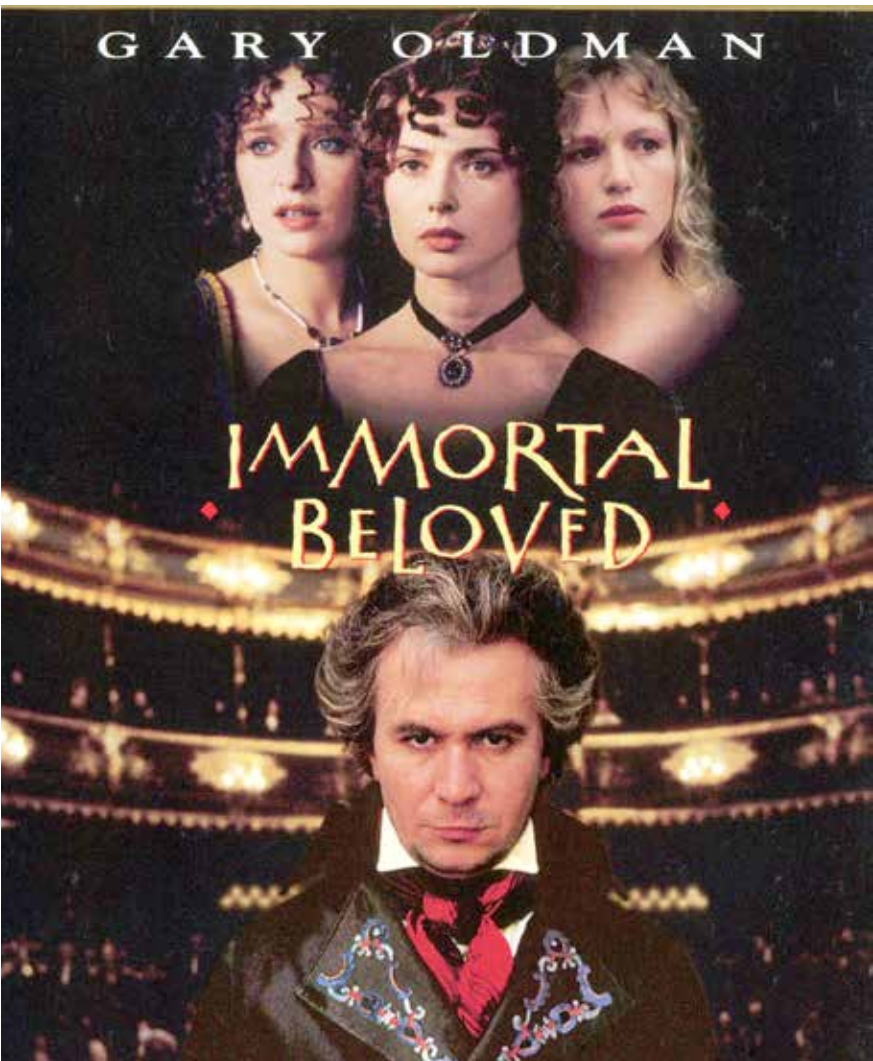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안녕히 계세요.  
언제까지나 늘 사랑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영원한 당신의,  
영원한 나의, 영원히...”

베토벤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그를 안타까움에 눈물과 한숨짓게 만들었던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녀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1995년 “Immortal Beloved” 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죠. 솔티경이 음악을 맡고, 게리 올드만이 열연한 아름답고 슬픈 영화임에도, 이런 류의 영화를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아마데우스같은 수준을 기대 한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끝 부분에 비밀이 드러나며 결정적으로 지목된 여인은 그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설정이라 크라이마스로 몰입해 가는 걸 방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음악과 장면에 많아 여러분께 영화를 봐가며 그 여인을 밝혀볼까 합니다.

1827년, 57세로 베토벤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해 하며 모인 가운데 성대히 장례식이 거행되고, 씀씀리는(베토벤의 흙모자이자 조수) 유품을 정리하다 편지와 유서를 발견합니다. 유서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불멸의 연인’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가 가진 단 하나의 단서는 베토벤이 어떤 여자와 도망을 치기 위해 스완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려 그 곳으로 가 종업원 할머니에게 물었는데 그녀의 기억은 생생하지만 그녀는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날,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베일에 모습을 감춘 여인이 베토벤을 기다리기 위해 호텔방에 들어갔습



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엄청난 폭우로 마차가 갈 수 없어, 자신이 늦더라도 기다려 달라는 전갈을 보냅니다. 종업원은 그 편지를 접시 밑에 끼워 방에 전했는데 그녀는 그걸 보지 못하고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해 떠나 버립니다. 조금 후 베토벤이 도착하고 방에 올라갔지만 아무도 없자 미처 날뛸며 집기를 때려 부숩니다. 씀씀리는 그녀가 호텔 체크인 할때 남긴 일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 쓴 싸인만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가장 불멸의 연인에 가까운 여인은 보헤미아 귀족의 딸 줄리아니 귀차르디였습니다. 그녀는 후에 베토벤과 약혼까지 했던 테레제 폰 부른스비크의 사촌인데, 베토벤이 자처하여 그녀의 음악선생이 되었죠. 피아노를 가르치며 막대기로 손등을 가져없이 후려치던 이 괴팍한 음악선생과 열 일곱밖에 안된 귀족아가씨가 사랑에 빠져 버렸습니다. 귀병이 심해가던 30세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절망과 비참함에서 베토벤을 구해주었습니다.

“나의 청춘이 시작되는 건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든다. 아, 인생을 천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이처럼 세상이 아름다우니까..”(베토벤이 친구에게 쓴 편지의 일부)

베토벤은 귀가 잘 안들린다는 사실을 될 수 있는 한 숨기며 살아왔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딸을 설득하기 위해 계락을 꾸밈니다. 자기 집에 새로 런던에서 들어온 최신 피아노가 있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권하며 자신들은 멀리 갈 데가 있어 집에 아무도 없을거라 말하죠. 그러곤 그가 오자 옆 방에서 몰래 베토벤을 훑쳐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토벤은 공명판에 귀를 대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이었죠. 월광 1악장을 아름답게 연주하다 누가 엿보는 걸 알아차린 베토벤은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 그녀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영화속의 이 이벤트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가장 로맨틱하다는 피아노 소나타 월광이 그녀에게 헌정되었고, 그녀가 베토벤을 사모했

음에도 아버지가 골라준 백작에게 시집을 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가 그녀와 한참 사랑했던 때는 1801년 이고,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 1812년엔 그녀는 결혼하여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불멸의 연인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806년 약혼까지 했다 결국 신분의 벽으로 파혼한 테레제 폰 부른스비크일까요?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베토벤을 존경하며 84세까지 살았는데, 그녀의 말에 의하면 베토벤은 미인으로 평판이 자자한 자신의 여동생을 자신보다 더욱 사랑했기에 불멸의 여인은 동생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인물은 평민인 요하나라는 가구천 공장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베토벤과 그의 남동생이 동시에 그녀에게 열렬히 반했는데 결국 동생 캐스퍼의 부인이 되었죠. 베토벤은 그녀에게 질투심에서인지 시도때도 없이 창녀라고 욕을 하고 동생에게 저런 여자와 결혼 하는 건 미친 게 아니냐고 퍼 풋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창녀를 잡아가라고 고발까지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결혼 전에 애인이 있었었던 사실이나 그건 범죄는 아니지 않냐고 말합니다.

캐스퍼와는 이후 원수처럼 연락도 안하고 지내다 8년 후 어느날 베토벤은 고집병이 도진 것처럼 다시 그를 찾아가 자신의 약보를 내 놓으라고 트집잡으며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미 깊은 병에 걸려 피를 토하는 지경이었죠. 얼마 후 캐스퍼가 죽자 이번엔 그녀의 하나뿐인 어린 아들 칼을 생모에게 뺏아 자신의 양자로 들입니다. 엄마가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쯤되니 베토벤은 요하나라와 무슨 원수 진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베토벤은 우울증을 넘어 미쳐가는 것일까요?



[여행기]

## 낭만의 기차여행

목적지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 것만은 아니다. 달리는 동안 누리는 호사스러운 서비스부터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 정차역에서 맛보는 ‘꿀맛’ 간식들 그리고 낯선 이와 우연 같은 인연까지, 특급 재미를 싣고 달리는 세계의 기차와 알차 여정을 모았습니다. 동문님들의 기차여행기를 기다립니다.

### 플롬스바나 (Flamsbana)

노르웨이의 빙하 지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차. 뮌달(Myrdal)에서 플롬(Flam)까지 50분 정도 달리는 비교적 짧은 코스다. 최고속도 40km로 865m를 하강하는 ‘송네피오르(Sognefjord 빙하 침식으로 만들어진 204km의 협곡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구간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스틸을 선사한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네로이피오르(Naeroyfjord)와 유럽 최대의 빙하 요스테달(Jostedal) 등 진정한 안내원이 필수 관광 포인트까지 설명해 준다. 기차는 역마다 5분씩 정차하는데 만년설이 절벽을 타고 녹은 물이 흐르는 홀드라(Huldra) 폭포에 멈추면 스칸디나비아 전설 속 나무요정 홀드라(실제로는 노르웨이 발레 스쿨 학생들이다)가 신비한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다. 자유 투어 프로그램인 ‘노르웨이 인 어 넷셀 패키지’를 선택하면 취향에 따라 코스(기차, 버스, 페리를 번갈아 탈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하다. 뮌달에서 플롬까지 약 50불부터, 노르웨이 인 어 넷셀 패키지(5월~9월까지만 운행)는 약 10여불부터.

### 글래시어 익스프레스 (Glacier Express)

스위스 체르마트(Zermatt)에서 생모리츠(Saint-Moritz)까지 300km 구간을 8시간에 걸쳐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풍경 열차로 ‘빙하특급’이라고도 불린다. 7개의 골짜기와 291개의 다리, 91개의 터널을 지나며 그림 같은 고산지대의 풍경을 앉아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안데르마트(Andermatt)에서 생모리츠로 가는 여정에 몸을 싣길 권하는데, 해발 2033m의 ‘오버알프패스(Oberalppass)’ 고개를 넘어가는 ‘안데르마트-쿠어(Chur)’ 구간에서 만년설과 초록 잔디가 공존하는 기막힌 풍경을 파노라마 창을 통해 만끽할 수 있다. 클럽, 박물관, 쇼핑센터 등 다양한 문화가 잘 어우러진 쿠어에 내려 기차 속의 느긋한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브람브뤼에시(Brambruesch)’ 산에서 산악 스포츠를 즐기거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빈드너 헤르샤프트(Bundner Herrschaft)’ 지역의 포도밭과 와인 저장고를 구경할 수도 있다. 안데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약 100불부터.

### 나나쓰보시 인 규슈 (Seven Stars in Kyushu)

일본달리는 7성급 호텔 ‘나나쓰보시(七星) 인 규슈’는 일본 최초의 크루즈 열차로 규슈의 7개 현을 다닌다. 전 객실(14개의 스위트룸)과 내부를 나무와 패브릭으로 고급스럽게 꾸몄다. 기차 내에선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규슈의 계절 발상을 끼니 때마다 즐길 수 있다. 규슈의 북서부 지방(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 현)을 여행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는 기차와 나나쓰보시 전용 버스를 번갈아 타고 이동한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 굽는 마을’ 아리타를 둘러보고 부드러운 일본식 계란찜과 포슬포슬한 ‘후쿠사야’ 카스텔라도 맛볼 수 있다. 미야자키 하이라인 감독의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배경이 된 아기자키한 유후인 거리를 여유롭게 거니는 것도 매력적이다. 일상에 단 한 번뿐인 호화로운 기차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2인 1실로 1인당 약 1500불부터.

### 비아 레일 (Via Rail)

캐나다 450개 지역을 연결하는 기차 비아 레일. 관광객뿐 아니라 캐나다 현지인에게도 인기다. 전장이 우리로 된 ‘스카이라인 카’에서 편안한 ‘리클라이닝 시트’에 몸을 맡기고 캐나다의 대자연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좌석은 이코노미, 슬리퍼플러스, 프레스티지 클래스 3가지 타입이다. 침대칸인 슬리퍼플러스 클래스는 샤워 시설과 라운지가 딸린 ‘파크 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3가지 코스 요리와 와인이 제공된다. 총 19개 노선 중 가장 인기 높은 ‘캐나다인 호(The Canadian)’ 라인은 밴쿠버와 토론토 사이를 3박 4일 동안 달린다. 특히 ‘밴쿠버-제스퍼’ 구간을 지날 땐 창밖으로 로키산맥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빛어내는 절경이 펼쳐진다. 작은 시골 마을 제스퍼에 내려뒀던 ‘트램웨이 (Tramway)’를 타고 휘슬러 산을 올라가 보길 추천한다. 궁극의 절경과 마주할 수 있을 것. 캐나다인 호는 약 3만원부터, 밴쿠버-제스퍼까지 약 100불부터.







박준창 (인문 79)

[영화]

## The Imitation Game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온 세계가 난리였는데 이런 신과 같은 컴퓨터를 고안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이런 세상이 온다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천재는 있게 마련. 1930년대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컴퓨터의 효시가 되는 물건을 만들어 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알란 튜링 (Alan Turing) 이라는 천재다. 컴퓨터, 수학, 논리학, 이론 생물학, 암호 해독학 등의 여러 학문에서의 대가. The Imitation Game은 사실로 생을 마감한 불우한 천재의 컴퓨터 (암호 해독기) 개발과정을 그린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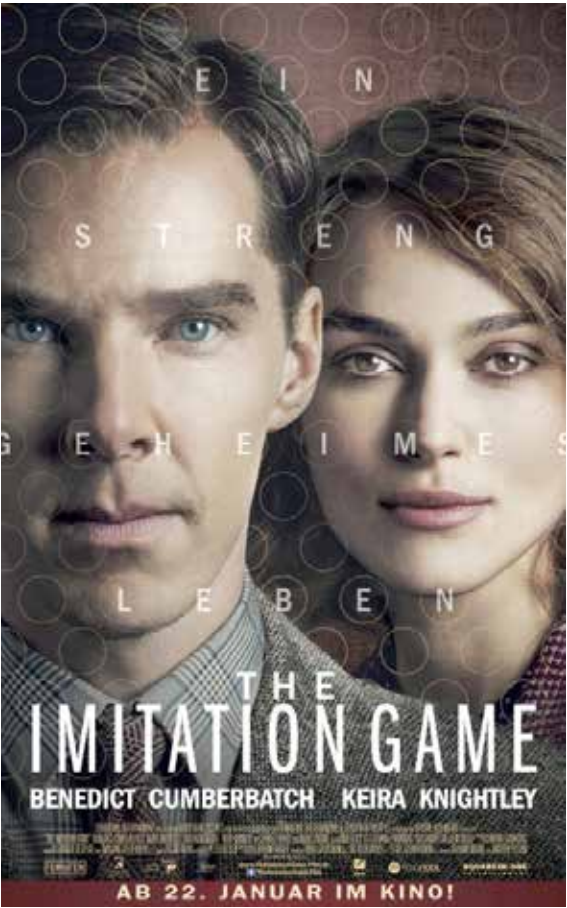
때는 1939년, 영국은 나치 독일과 2차 대전 중이었고 독일이 ‘수수께끼 기계 (Enigma Machine)’ 라는 기계에서 라디오로 보내는 암호를 알아 내어야 하는데 이 암호를 해독할 길이 없다. 기계의 세팅을 매일 바꾸기 때문에, 암호를 풀어도 다음 날 6시가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세팅의 경우의 수는 무려 159 에다가 0가 18자리, 즉, 159,000,000,000,000,000,000. 독자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읽을 수 나 있으신지?

이 해독을 위하여, 암호 해독 전문가 5명 중 1명으로 튜링이 선발이 된다. 23살에 논문을 내고, 24살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있던 당시 27살의 튜링. 그런데 그는 팀으로 서가 아닌 혼자 일하기를 고집한다. 다른 팀원들은 그의 일을 지연시킬 뿐이라면서, 그는 단순한 암호 해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계를 위한 예산 청구가 거절되자 그는 당시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편지를 쓰고 놀랍게도 처칠은 예산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팀의 책임자로 임명을 한다. 지도자의 혜안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그는 두 명을 하고시키고, 자신이 출제한 어려운 크로스

워드 퍼즐 문제 해결자 두 사람을 후임자로 선발한다. 그중 한 사람이 여성인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조운 클라크 (Joan Clarke). 후일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튜링은 마침내 기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컴퓨터의 원형. 그는 이 기계에 크리스토퍼란 이름을 지어 준다. 동성연애자인 튜링이 고등학교 때 사랑했던, 자신에게 암호 해독 분야를 눈뜨게 해 준 동료 남학생 크리스토퍼 모컴 (Christopher Morcom) 에서 따온 것 (모컴은 희귀병으로 고등학교 때 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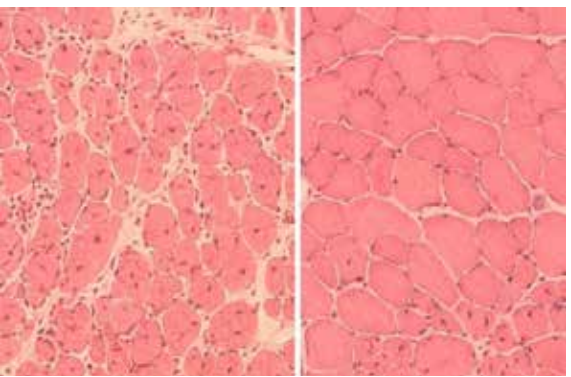
그러나 이 기계는 여전히 에니그마를 해독할 수가 없다. 매일 매일 바뀌는 세팅을 빨리 따라 갈 수가 없었던 것. 화난 데니스턴 제독은 기계를 부숴 버리고 튜링을 하고 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팀원 전원이 반기를 든다. 튜링을 하고시키면 자기들도 다 떠나겠다고.

그들은 마침내 해독에 성공한다. 그런데 첫 해독의 성과는? 그들은 독일의 유-보우트 목표물이 영국의 여객선 선단임을 알게 된다. 팀원들은 즉시 이 사실을 데니스턴 제독에게 알려지고 한다. 하지만……튜링이 반대한다.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웬 반대? 갑자기 여객선단이 우회를 하고, 영국기가 나타나 유-보우트를 격침시킨다면 독일군들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들은 에니그마가 해독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에니그마를 다시 바꿀 것이라고. 그러면 2년 동안의 그들의 노력이 수포가 된다고. 그들의 임무는 민간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독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이 때들 중 하나에 팀원 중 한 사람의 형이 승선을 했음에도,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한사코 튜링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끝까지 정부와 군 고위직들도 몰랐다.



영화는 이쯤에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 주면서 영화는 계속된다. 이 부분들은 영화를 직접 보시라.

영화는 2시간이나 될 정도로 긴데도 재미있다. 한 천재의 통찰력, 집념, 현실을 직시하는 눈,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국가 이익만을 생각하는 차가운 판단력, 증오스러울 정도의 냉엄한 비밀 정보 기관 MI6의 행동 등 영화는 의외로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다. 2014년 개봉되자마자 호평을 받았고 관객 동원에도 성공한 영화.



왼쪽은 나이트 생쥐의 근육 조직이다. 이 생쥐에게 이번 연구에 따른 치료법을 적용하자 오른쪽처럼 근육 조직이 바뀌었다. 소크 연구소 제공

‘불로장생’의 꿈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 미국 연구진이 최근 동물실험을 통해 세포의 생체학적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의 소크연구소(Salk Institute) 연구진이 일종의 유전자 치료법을 생쥐에게 적용한 결과 성체 세포를 초기 배아 형태로 되돌려 더 젊어보이게 하고

[건강]

## ‘불로장생’ 가능할까..

美 연구진 생쥐 세포 시계 되돌리는데 성공

수명까지 30%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12월 15일자 세계적인 학술지인 셀(Cell Press, http://www.cell.com/) 에 실렸다.

연구에는 수정된 난자의 생장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4개의 유전자인 ‘야마나카 인자’를 자극하는 방식이 쓰였다. 조로증을 앓는 생쥐에게 6주간 이 치료법을 적용하자 수명이 30%까지 늘어났다. 건강한 생쥐에게서는 손상된 기관들이 복구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세포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개선됐다. 다만 정상 생쥐의 경우 아직 제 수명이 다하지 않아서 수명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마나카 인자가 성체 세포를 배아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포가 구성한 기관을 손상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야마나카 인자를 간헐적으로 자극한다면 부작용 없이 노화를 더디게 하거

나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소크 유전자연구소의 후안 카를로스 이스피우아 벨몬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노화가 반드시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신중한 변조를 통해 노화는 되돌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화 과정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생체 시계가 가는 속도를 더디게 함으로써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벨몬트 교수는 “이런 접근법이 불멸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마나카 인자를 자극하는 재현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 인체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조로증처럼 심각한 유전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크림 같은 화장품이나 주사제 형태를 통해 피부는 물론 근육, 뼈에도 적용이 가능한 전망이다. 연구진은 향후 10년 내에 인체실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 이달의 사진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Exif: Nikon Coolpix L10, F2.8, 1/70sec, ISO 64, 6.2mm, Multi-Segment



Yellow Stone National Park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Geyser Vapor를 배경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행로는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마지막인지.. 천년을 만년을 그렇게 있어왔는데..

김정현 (공대 68)

[2016년의 사자성어]

교수신문은 2016년의 사자성어로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의 ‘君舟民水’(군주민수)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의 ‘君舟民水’(군주민수)가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20-22일 전국의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에서 군주민수가 32.4%(198명)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군주민수는 중국의 고전 순자(荀子) 왕

진시키는 첫 발은 툭툭을 나눠 밝히려는 용기와 권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더 이상 무조건 존경받는 군주도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착하고도 슬픈 백성도 없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176명(28.8%)이 꼽은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한다’는 뜻의 ‘역천자망’(逆天者亡), 3위는 113명(18.5%)이 꼽은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노적성해’(露積成海)가 선정됐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물에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을 품고 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이 대통령 하야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결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이끌어낸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전

[2016년의 단어]

권위있는 영어사전인 매리엄-웹스터 사전이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초현실적인’을 뜻하는 형용사 ‘surreal’을 선정했다.

매리엄-웹스터는 19일 ‘비현실적인 꿈 같은’,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등의 뜻을 가진 ‘초현실적인’을 올해의 단어로 선택했다. 올해의 단어는 매리엄-웹스터 웹사이트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율과 조회수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이 회사의 총괄 편집인 피터 소콜로스키는 “올 한 해 사람들이 초현실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그 외에도 4월 세계적인 팝스타 프린스의 사망,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총격 이후 조희 수가 소폭 상승했다.

매리엄-웹스터가 1996년부터 단어 조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났다. 사람들은 2001년 9.11테러,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2014년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 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 이후 ‘초현실적인’이란 단어를 검색했다.

## ‘Surreal’ named ‘word of the year’



보였다”며 “이는 종종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초현실적인’의 조회 수는 지난 3월과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난 뒤 급증했고, 7월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트럭 테러, 터키 쿠데타 시도 등의 사건이 나고 나서 급증했다. 소콜로스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며 “사람들이 비극적인 장면과 정신상태들을 묘사하기 위해 ‘초현실적인’이란 단어를 검색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현실적인의 조회 수가 가장 크게 늘었을 때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인이 됐을 때다.

매리엄-웹스터는 초현실적인 외에 트럼프가 ‘광범위하게’(Big league)를 모호하게 발음해 화제가 된 ‘비글리’(Bigly), 할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지지 집단을 가리키며 쓴 ‘개탄스러운’(Deplorable), ‘인수 소송’(Assumpsit), ‘무책임한’(Feckless) 등 미국 대선이나 정치판에서 등장한 단어들도 꼽았다. 또 ‘무관심한’(Irregardless), ‘아이콘’(Icon),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For the record), ‘부득이’(Faute de mieux), ‘모든 일에 준비가 된’(In omnia paratus)등의 단어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에게 오스카상을 안긴 ‘레버넌트’(Revenant·망령) 등을 올해의 단어 톱10으로 선정했다.

## 편집후기

송년회 기사를 기다리다 12월호가 2-3일 늦어졌는데, 연말 우체국 사정이 겹쳐 많은 동문들이 회보를 12월 말이 되어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의 말, 한 줄의 글, 한권의 책’에 대한 원고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병신년에 소위, 병신들의 못난 모습을 실컷 본 해라고 한다면 2017년 정유년에 ‘정유재란’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는 멋진 조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동창회보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귀한 글들을 보내주시는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 김정현(공대68)



##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12월 말까지 회비납부 765명 / 총회원 7019명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출생지

박인수(농대 64)

이정화(공대 52)

김명환(문리 67)

김은섭(의대 53)

이종환(법대 51)

윤기현(공대 77)

안은식(문리 55)

장극기(의대 64)

WASHINGTON

남기주

박인창(농대 65)

이정희(응대 55)

김병호(상대 57)

김정순(법대 53)

이종훈(공대 56)

이희덕(농대 67)

오동환(의대 65)

고광선(공대 57)

김교선(법대 54)

S.C.A/NV

박일우(의대 70)

이종도(공대 66)

김영춘(수) 64

김경희(간호 69)

이진호(간호 60)

전중화(공대 56)

유승환(수) 68

김영창(공대 64)

김재훈(공대 72)

김경수(법대 58)

박제민(약대 60)

이준호(상대 65)

김정복(사법 55)

김창섭(공대 22)

이태상(문리 55)

탁해숙(응대 67)

김영환(수) 68

김길종(약대 69)

강동순(법대 59)

박종수(수) 58

이중희(공대 53)

김경희(응대 56)

김창수(약대 64)

이태안(의대 61)

이상일(의대 54)

강길종(약대 69)

변중태(법대 58)

강정훈(미대 56)

박석진(의대 46)

이창무(공대 54)

김현화(공대 64)

김정화(의대 65)

이한기(의대 55)

룩키마운틴스

이상길(의대 65)

강연식(사대 58)

윤재창(의대 5)

강종경(공대 48)

박찬호(농대 63)

이채진(문리 55)

남승재(공대 66)

김현중(공대 63)

이희자(간호 70)

임공세(의대 61)

송요준(의대 64)

강종욱(의대 55)

이길승(상대 )

강종재(상대 53)

박창규(약대 59)

이 청(농대 61)

민병근(공대 65)

김훈일(공대 60)

임광목(상대 72)

이시영(상대 46)

고무환(법대 57)

이영희(공대 60)

공순옥(간호 66)

강희창(공대 57)

박취서(약대 60)

이청광(상대 61)

문석면(의대 52)

김정현(의대 52)

임재학(보건 68)

이영희(공대 60)

이윤락(공대 48)

이정일(농대 57)

권오근(상대 58)

고석규(지대 65)

박태호(지대 66)

이해영(공대 56)

박노면(사대 50)

민발식(의대 60)

장영자(간호 68)

이태영(공대 62)

권철수(의대 68)

고영순(응대 59)

박해국(간호 68)

임동규(미대 57)

박서규(법대 56)

민인기(의대 67)

장영자(간호 68)

이정일(농대 57)

권오근(상대 58)

이태영(공대 62)

권철수(의대 68)

고재규(의대 69)

박정자(응대 68)

장영자(의대 55)

김원준(공대 53)

박경숙(간호 71)

전병삼(약대 54)

임근식(문리 56)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태형(의대 57)

공대용(공대 65)

백소진(문리 55)

임진환(지대 68)

오호삼(문리 58)

안병철(공대 58)

박수안(의대 59)

전성진(사대 58)

장세곤(의대 57)

김영오(의대 63)

김진기( )

곽용길(문리 59)

백옥자(응대 71)

임창희(공대 73)

오창주(간호 77)

박영희(간호 69)

정인식(상대 58)

정장동(간호 45)

김영화(문리 65)

장시경(약대 58)

김영기(공대 73)

권기성(경영 72)

백옥자(응대 71)

임화희(지대 59)

오창주(간호 77)

박영태(상대 63)

정장동(간호 45)

김영화(문리 65)

장시경(약대 58)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권영자(의대 )

백태란(미대 70)

임화희(지대 59)

오창주(간호 77)

박영태(상대 63)

정장동(간호 45)

김영화(문리 65)

장시경(약대 58)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권건진(문리 62)

변영근(수) 52

장기창(공대 56)

온기철(의대 65)

박진우(상대 77)

정해순(간호 68)

조규웅(의대 59)

변우진(인문 81)

장재진(공대 80)

김종호(약대 68)

김정수(지대 58)

서동영(사대 60)

장정수(의대 64)

원미량(미대 65)

박철선(약대 60)

조아미(응대 61)

정성욱(지대 87)

장재진(공대 80)

김종호(약대 68)

김진수(의대 60)

김경숙(간호 68)

서영석(문리 61)

장진성(약대 66)

이문영(문리 61)

배병애(간호 47)

조정현(수) 58

송창원(문리 53)

장 흥(문리 61)

정승근(의대 56)

김진은(사대 55)

김기태(의대 52)

성낙호(지대 63)

장성국(사대 52)

이창우(문리 72)

변건준(공대 68)

주공모(공대 68)

조대현(공대 60)

김해식(공대 59)

노영은(가정 86)

안승기(의대 51)

김기형(상대 75)

손기용(의대 55)

정동주(가정 72)

이홍기(공대 62)

서경애(응대 67)

최구진(약대 54)

황호숙(사대 65)

노종범(공대 64)

남철일(사대 69)

유우영(의대 61)

김동산(법대 59)

송영아(응대 85)

정연옥(상대 63)

이영란(응대 76)

서병선(응대 65)

최영태(문리 67)

최영태(간호 64)

조형일(약대 50)

변영호(공대 64)

남철일(사대 69)

김동환(법대 61)

손학식(공대 61)

정영현(상대 63)

정규남(의대 52)

서상철(상대 78)

최영태(간호 64)

최한용(응대 58)

강영호(의대 57)

김영오(의대 53)

최형무(법대 69)

김병연(공대 68)

신동국(수) 76

정임현(문리 66)

정지선(상대 58)

서정웅(약대 63)

선종철(의대 57)

최한용(응대 58)

강영호(의대 57)

김영오(의대 53)

최형무(법대 69)

김병완(공대 58)

신창화(공대 58)

정재화(상대 59)

정진수(공대 56)

선종철(의대 57)

최형무(법대 69)

강영호(의대 57)

김영오(의대 53)

최형무(법대 69)

김영오(의대 53)

김석두(농대 58)

신영찬(의대 63)

정재훈(공대 54)

정경선(농대 65)

성기문(약대 57)

한승순(간호 70)

김기준(의대 61)

김계윤(의대 57)

최해철(의대 53)

김기준(의대 53)

김석홍(법대 59)

신정식(상대 64)

정철환(의대 55)

홍병익(공대 68)

송갑우(사대 59)

한영수(공대 61)

김기준(의대 53)

김기준(의대 53)

최해철(의대 53)

김기준(의대 53)

김신기(법대 59)

신정영(미대 61)

정태무(사대 44)

황동하(의대 65)

손경택(농대 57)

한태진(의대 58)

남창우(사대 56)

최희수(의대 67)

박용영(공대 65)

최희수(의대 67)

김성복( )

심삼은(상대 54)

정현진(간호 68)

정현진(간호 68)

함종균(간호 66)

이무선(공대 57)

박문선(공대 57)

이무선(공대 57)

최정현(의대 62)

한희일(공대 62)

김성옥(간호 81)

안병일(의대 63)

정영태(상대 59)

정정화(가정 7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성환(의대 65)

양승문(공대 6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수영(사법 57)

양운백(의대 58)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순길(법대 54)

양창호(상대 54)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준자(지대 57)

양태준(상대 56)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영수(의대 63)

염동태(농대 74)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영태(법대 58)

오선옥(의대 6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영희(사법 56)

오수자(사대 59)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용재(의대 60)

오양숙(간호 60)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원경(약대 59)

우춘식(상대 6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인종(농대 74)

위정진(공대 64)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일영(의대 65)

유석봉(상대 6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재종(지대 62)

유의영(문리 56)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정애(간호 69)

유재환(상대 67)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종태(상대 58)

유진철(상대 )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종표(법대 58)

육대식(의대 6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준일(공대 62)

윤경민(법대 5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창무(응대 53)

윤석철(상대 60)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태윤(법대 53)

윤용길(공대 5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택수(의대 57)

이건일(의대 62)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홍목(문리 66)

이 판(공대 5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희자(간호 64)

이규남(의대 62)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희재(사대 63)

이근웅(의대 6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희창(공대 63)

이기재(사대 52)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나주(의대 66)

이병선(상대 58)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니수(응대 65)

이미정(의대 78)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승욱(문리 59)

이방기(농대 59)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정자(간호 70)

이범식(공대 6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노병(공대 60)

이병준(상대 5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문덕(공대 73)

이서희(법대 70)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문경(문리 61)

이성수(공대 66)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문일(공대 51)

이소희(의대 6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민봉(문리 58)

이영일(문리 5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수봉(상대 55)

이월의(문리 7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대균(수) 57)

이원택(의대 6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규(사대 64)

이장길(지대 6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성국(상대 58)

이재권(법대 56)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영희(응대 66)

이재룡(공대 7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우성(상대 72)

이재선(농대 58)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은숙(미대 66)

이정근(사대 60)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은숙(문리 59)

이영일(문리 5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민수(상대 55)

이월의(문리 7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대균(수) 57)

이원택(의대 65)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규(사대 64)

이장길(지대 63)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성국(상대 58)

이재권(법대 56)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영희(응대 66)

이재룡(공대 71)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김박우성(상대 72)

이재선(농대 58)

장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정정화(가정 71)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 제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            |            |            |            |             |            |              |            |            |            |
|------------|------------|------------|------------|-------------|------------|--------------|------------|------------|------------|
| 유기병(문리 64) | 정덕준(상대 63) | 최정웅(공대 64) | 김종권(의대 63) | 홍순호(수의 74)  | 테네시        | 남궁종(공대 52)   | 구명순(간호 66) | 최은관(상대 64) | 유한창(공대 69) |
| 윤정현(음대 57) | 정광수(의대 56) | 최종무(상대 63) | 문상규(의대 66) | 황현상(의대 55)  | TENNESSEE  | 유재호(문리 59)   | 권준희(가정 87) |            | 이규진(약대 60) |
| 이병인(수의 69) | 정태광(상대 54) | 최종문(공대 61) | 박창익(농대 64) |             | 김경덕(공대 75) | 장광수(사대 50)   | 김정숙(가정 70) | 휴스턴        | 이길영(문리 59) |
| 이상봉(문리 65) | 정학량(약대 56) | 최현태(문리 62) | 송용덕(의대 57) | 캐롤라이나       | 서갑식(공대 70) | 최경윤(사범 51)   | 김명자(문리 62) | HOUSTON    | 이찬주(문리 63) |
| 이성숙(가정 74) | 정홍택(상대 61) | 한용오(보건 69) | 안창형(의대 55) | SC/NC/KY    | 우양구(법대 70) | 최태식(의대 69)   | 김승희(법대 55) | 김태훈(공대 57) | 진기우(상대 60) |
| 이수형(자연 81) | 정영호(음대 56) | 한인설(약대 63) | 이정필(의대 60) | 아일라노(사대 45) |            | 황양수(사대 64)   | 김시근(공대 72) | 김찬일(공대 53) | 최관일(공대 54) |
| 이지영(문리 67) | 주기복(수의 68) | 전명익(공대 75) | 전영자(미대 58) | 이베세(의대 59)  | 하와이        |              | 백산옥(문리 52) | 김환영(공대 61) | 최성호(문리 58) |
| 이지춘(미대 57) | 지재원(사대 68) |            | 조동진(공대 69) | 이석형(사대 56)  | HAWAII     |              | 임성강(의대 70) | 박석규(간호 59) | 탁순덕(사범 57) |
| 전무식(수의 61) | 지흥민(수의 61) | 플로리다       | 최준희(의대 68) | 이항열(법대 57)  | 구해근(문리 60) | IA/MO/KS/NE/ | 임영신(공대 74) | 박유미(공대 52) |            |
| 전희근(문리 64) | 차호순(문리 60) | FLORIDA    | 한기봉(의대 52) | 한광수(의대 57)  | 김승태(의대 57) | AR/OK        | 정민재(농대 70) | 박재우(공대 64) |            |

[illegible]

## 후원회비

[illegible]



| 미주 동문 업소록                                                                                                                                                                                                                                                                                                                                                                                                                                                                                                                                                                                                                                                                                                                                                                                                                                                                                                                                                                                                                                                                                                                                                                                                                                                                                                                                                                                                                                                                                                                                                                                                                                                                                                                                                                                                                                                   |                                                                                                                                                                                                                                                                                                                                                                                                                                                                                                                                                                                                                                                                                                                                                                                                                                                                                                                                                                                                                                                                                                                                                                                                                                                                                                                  |                                                                                                                                                                                                                                                                                                                                                                                                                                                                                                                                                                                                                                                                                                                                                                                                                                                                                                                                                                                                                                                                                                                                                                                                                                                                                                                                                                                                                                                                                                                                                                                                                                                                                     |                                                                                                                                                                                                                                                                                                                                                                                                                                                                                                                                                                                                                                                                                                                                                                                                                                                                                                                                                                                                                                                                                                                                                                                                                                                                                                                                                                                                                                                                                                                                                                                                                                                                                                                                                       |
|-------------------------------------------------------------------------------------------------------------------------------------------------------------------------------------------------------------------------------------------------------------------------------------------------------------------------------------------------------------------------------------------------------------------------------------------------------------------------------------------------------------------------------------------------------------------------------------------------------------------------------------------------------------------------------------------------------------------------------------------------------------------------------------------------------------------------------------------------------------------------------------------------------------------------------------------------------------------------------------------------------------------------------------------------------------------------------------------------------------------------------------------------------------------------------------------------------------------------------------------------------------------------------------------------------------------------------------------------------------------------------------------------------------------------------------------------------------------------------------------------------------------------------------------------------------------------------------------------------------------------------------------------------------------------------------------------------------------------------------------------------------------------------------------------------------------------------------------------------------|------------------------------------------------------------------------------------------------------------------------------------------------------------------------------------------------------------------------------------------------------------------------------------------------------------------------------------------------------------------------------------------------------------------------------------------------------------------------------------------------------------------------------------------------------------------------------------------------------------------------------------------------------------------------------------------------------------------------------------------------------------------------------------------------------------------------------------------------------------------------------------------------------------------------------------------------------------------------------------------------------------------------------------------------------------------------------------------------------------------------------------------------------------------------------------------------------------------------------------------------------------------------------------------------------------------|-------------------------------------------------------------------------------------------------------------------------------------------------------------------------------------------------------------------------------------------------------------------------------------------------------------------------------------------------------------------------------------------------------------------------------------------------------------------------------------------------------------------------------------------------------------------------------------------------------------------------------------------------------------------------------------------------------------------------------------------------------------------------------------------------------------------------------------------------------------------------------------------------------------------------------------------------------------------------------------------------------------------------------------------------------------------------------------------------------------------------------------------------------------------------------------------------------------------------------------------------------------------------------------------------------------------------------------------------------------------------------------------------------------------------------------------------------------------------------------------------------------------------------------------------------------------------------------------------------------------------------------------------------------------------------------|-------------------------------------------------------------------------------------------------------------------------------------------------------------------------------------------------------------------------------------------------------------------------------------------------------------------------------------------------------------------------------------------------------------------------------------------------------------------------------------------------------------------------------------------------------------------------------------------------------------------------------------------------------------------------------------------------------------------------------------------------------------------------------------------------------------------------------------------------------------------------------------------------------------------------------------------------------------------------------------------------------------------------------------------------------------------------------------------------------------------------------------------------------------------------------------------------------------------------------------------------------------------------------------------------------------------------------------------------------------------------------------------------------------------------------------------------------------------------------------------------------------------------------------------------------------------------------------------------------------------------------------------------------------------------------------------------------------------------------------------------------|
| CA 남가주                                                                                                                                                                                                                                                                                                                                                                                                                                                                                                                                                                                                                                                                                                                                                                                                                                                                                                                                                                                                                                                                                                                                                                                                                                                                                                                                                                                                                                                                                                                                                                                                                                                                                                                                                                                                                                                      | 식품 / 음식점                                                                                                                                                                                                                                                                                                                                                                                                                                                                                                                                                                                                                                                                                                                                                                                                                                                                                                                                                                                                                                                                                                                                                                                                                                                                                                         | 우주개발 / 기술                                                                                                                                                                                                                                                                                                                                                                                                                                                                                                                                                                                                                                                                                                                                                                                                                                                                                                                                                                                                                                                                                                                                                                                                                                                                                                                                                                                                                                                                                                                                                                                                                                                                           | 클리닉                                                                                                                                                                                                                                                                                                                                                                                                                                                                                                                                                                                                                                                                                                                                                                                                                                                                                                                                                                                                                                                                                                                                                                                                                                                                                                                                                                                                                                                                                                                                                                                                                                                                                                                                                   |
| <b>공인회계사</b><br><br><b>CPA 김재영 공인회계사</b><br>김재영 (농대 62)<br><br>Tel. (213) 385-1985<br>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br><br><b>Kim &amp; Kang CPA's</b><br>(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br>김경무 (공대 69)<br><br>Tel. (213) 616-1390<br>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br><br><b>AAMKO Consulting Co.</b><br>(강신용 공인회계사)<br>강신용 (사대 73)<br><br>Tel. (213) 380-3801<br>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br><br><b>이강원 공인회계사</b><br>이강원 (인문대 76)<br><br>Tel. (213) 387-1234<br>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br><br><b>강호석 회계사무소</b><br>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br><br>Tel. (213) 380-5060(LA),<br>(714) 530-3630(Garden Grove, CA)<br>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br>(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br><br><b>STANLEY Cha, CPA</b><br>차기민 (공대 85)<br><br>Tel. (213) 739-5700, (714) 525-1821<br>schacpa@gmail.com<br>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br>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br><br><b>Jun Chang CPA &amp; Associates, AC</b><br>장 준 (인문대 85)<br><br>Tel. (818) 772-2811, (213) 272-2460<br>jun@junchangcpa.com<br>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br>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br><br><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br><b>AXA Advisor</b><br><br><b>Paramount Planning Group</b><br>조임현 (간호대 72)<br><br>Tel. (213) 487-3253<br>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br>im.cho@axa-advisors.com<br><br><b>오흥조(치대 56)</b><br><br>Oh, Heung Jo<br>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br>Tel: (213)382-8205<br><br><b>윤승 / 유통 / 원자재</b><br><br><b>SeAH Steel America, Inc.</b> (유통/강판도매)<br>이병준 (상대 55)<br><br>Tel. (949) 655-9000<br>2100 Main Street #100<br>Irvine, CA 92614<br><br><b>OR 오레곤</b><br><br><b>Flonomix Inc.</b><br>박희진 (농대 78)<br><br><br>Tel. (503) 648-0775<br>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br>이승훈 (상대 74)<br><br>Tel. (562) 633-7400<br>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br><br><b>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b><br><br><b>Lee &amp; Ro, Inc.</b><br>노명호 (공대 61)<br><br>Tel. (626) 912-3391<br>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br><br><b>ACCU Construction, Inc.</b><br>염동해 (농대 74)<br><br>Tel. (714) 641-4730<br>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br><br><b>의료 / 약국</b><br><br><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br>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br><br>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br>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br>drcchung@yahoo.com<br><br><b>Beverly Cardiology Group</b><br>Il Young Kim MD (의대 65)<br><br>Diana Kim MD Tel. (323) 662-1175<br>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br>www.beverlycardiology.com<br><br><b>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b><br>정수만 (의대 66)<br><br>Tel. (714) 539-6414<br>12555 Garden Grove Blvd. #309<br>Garden Grove, CA 92843<br><br><b>Gilbert Pharmacy</b><br>최무식 (약대 66)<br><br>Tel. (714) 638-8230<br>9240 Garden Grove Blvd. #20<br>Garden Grove, CA 92844<br><br><b>Seoul Medical Group ★</b><br>차민영 (의대 76)<br><br>Tel: 213-480-7770<br>(877) 764-1405<br>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br><br><b>나성약국 ★</b><br>임낙균 (약대 64)<br><br>Tel: (213) 387-3030<br>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 <b>Tayco Engineering, INC</b><br>정재훈 (공대 64)<br>Tel. (714) 952-2240<br>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br>jchung@taycoeng.com<br>www.taycoeng.com<br><br><b>Link TV Media</b><br>김원탁(공대 65)<br>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br>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br>linkboxusa@gmail.com<br>www.linkboxusa.com<br><br><b>동물병원</b><br><br><b>Animal Medical Clinic</b><br>신동국 (수의대 76)<br><br>Tel. (714) 990-1411<br>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br><br><b>Francis Animal Hospital</b><br>최재현 (수의대 66)<br><br>Tel. (909) 627-0951<br>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br><br><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br><br>한상봉 (수의대 67)<br><br>Tel. (510) 232-3465<br>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br><br><b>변호사</b><br><br><b>신혜원 변호사</b><br>신혜원 (사대 81)<br><br>Tel. (213) 385-3773<br>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br><br><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br><b>Kenneth T.HAAN &amp; Associates, APLC</b><br>한태호 변호사<br>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br>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br>www.haanlaw.com<br><br><b>부동산</b><br><br><b>Team Spirit Realty</b><br>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br><br>Tel. (714) 396-0624<br>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br>jenniecelee@gmail.com<br><br><b>마켓</b><br><br><b>Han Nam Chain Market</b><br>하기환 (공대 66)<br><br>Tel. 213-381-3610<br>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br><br><b>기타</b><br><br><b>Turbo Air, Inc. ★</b><br>서치원 (공대 69)<br><br>Tel: 310-719-5422<br>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br><br><b>라 카나다 한인교회</b><br>독고원 (공대 65)<br><br>Tel. (818) 790-7320<br>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br>이상대 (농대 80)<br><br>Tel. (909) 882-3800(B), (714) 323-8612(C)<br>2095 N. Waterman Ave.<br>San Bernadino, CA 92404<br><br><b>자동차 / 서비스</b><br><br><b>A.P.W. 자동차 부품</b><br>서동영 (사대 60)<br><br>Tel. (310) 753-9636<br>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br><br><b>CA 북가주</b><br><br><b>두리 하나 결혼정보</b> 정지선(상대 58)<br>'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br>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br>Tel. (510) 224-0760<br>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br>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br><br><b>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b><br> The International Society of<br>Offshore and Polar Engineers<br>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br><br>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br>Ocean, Arctic, Energy<br>www.isope.org, jschung@isope.org<br><br><b>GA 조지아</b><br><br><b>Auto Plaza Group, INC.</b><br>이영진 (공대 76)<br><br>Tel. (404) 679-8282<br>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br><br><b>Wesley &amp; Associates, CPA</b><br>윤태우<br><br>Tel. (770) 451-1850<br>3700 Crestwood Pkwy, Suite 380,<br>Duluth, GA 30096<br><br><b>PA 필라델피아</b><br><br><b>음식점</b><br><br><b>이즈미 일식당</b><br>최종문 (공대 61)<br><br>Tel. (267) 408-7342<br>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br>(ASSI Plaza )<br><br><b>동물병원 / 치과</b><br><br><b>Cottman Animal Hospital</b><br>주기목 (수의대 68)<br><br>Tel. (215) 745-9030<br>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br><br><b>Blue Bell Family Dentistry</b><br>김순주 (치대 95)<br><br>Tel. (610) 278-1110<br>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br><br><b>건축</b><br><br><b>Timothy Haahs &amp; Assoc.</b><br>손재욱 (생활과대 77)<br><br>Tel. (484) 342-0200<br>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br>PA 19422 |

| NV 네바다                                                                                                                                                                                                                                                                                                                                                                                                      | 치과                                                                                                                                                                                                                                                                                                                                                                                                                                                                                                                                                                                                                                                  | 비뇨기과                                                                                                                                                                                                                                                                                                                                                                                                                                       | MD · VA · 워싱턴 DC                                                                                                                                                                                                                                                                                           |
|-------------------------------------------------------------------------------------------------------------------------------------------------------------------------------------------------------------------------------------------------------------------------------------------------------------------------------------------------------------------------------------------------------------|-----------------------------------------------------------------------------------------------------------------------------------------------------------------------------------------------------------------------------------------------------------------------------------------------------------------------------------------------------------------------------------------------------------------------------------------------------------------------------------------------------------------------------------------------------------------------------------------------------------------------------------------------------|--------------------------------------------------------------------------------------------------------------------------------------------------------------------------------------------------------------------------------------------------------------------------------------------------------------------------------------------------------------------------------------------------------------------------------------------|------------------------------------------------------------------------------------------------------------------------------------------------------------------------------------------------------------------------------------------------------------------------------------------------------------|
| <b>Best Care Dental</b><br>김영중 (치대 66)<br><br>Tel. (702) 384-2828, (702) 480-7115<br>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br>김성래 (치대 76)<br>Tel. (201) 666-2828<br>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br><b>계동휘중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b><br>Wayne Kye D.D.S, M.S<br>계동휘 (치대 67)<br><br>Tel. (718) 898-9049<br>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 <b>윤세웅 비뇨기과</b><br>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br>윤세웅<br>Tel. (718) 335-3333<br>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br>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 <b>치과</b><br><br><b>이준영 치과</b><br>이준영 (치대 74)<br>Tel. (301) 220-2828, (301) 926-9692<br>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br>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
| NY / NJ (뉴욕 / 뉴저지)                                                                                                                                                                                                                                                                                                                                                                                          | 알리지                                                                                                                                                                                                                                                                                                                                                                                                                                                                                                                                                                                                                                                 | 소아과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b>공인회계사</b><br><br><b>Changsoo Kim, CPA P.C.</b><br>김창수 (약대 64)<br><br>Tel. (212) 760-1768, (917) 647-0606<br>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br>changsookimcpa@hotmail.com<br><br><b>KL CPA &amp; Associates LLC</b><br>이경림 (상대 64)<br><br>Tel. (212) 768-9144<br>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b>백승원 위장내과</b><br>ANDREW S. BAIK M.D.<br>백승원 (의대 73)<br><br>Tel. (201) 302-9774, (732) 744-9090<br>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br>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br><br><b>석창호 위장내과</b><br>Chang Ho Suk, M.D.<br>석창호 (의대 66)<br><br>Tel. (718) 461-6212<br>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br><br><b>심인보 심장내과</b><br>IN-BO SHIM, M.D.<br>심인보 (의대 77)<br><br>Tel. (201) 569-1800, (718) 836-0009<br>700 Palisade Ave 1st Floor Englewood Cliffs, NJ 07632<br>237 82nd St, Brooklyn, NY 11209<br><br><b>이창석 내과</b><br>Chang Suk Lee, M.D.<br>이창석 (의대 72)<br><br>Tel. (718) 762-4400<br>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 <b>민재홍 소아과</b><br>Jae Hong Min, M.D., P.C.<br>민재홍<br>Tel. (718) 353-5300<br>34-09 Murray St #1fl, Flushing, NY 11354<br><br><b>박범열 소아과</b><br>Beum Yul Park, M.D.<br>박범열 (의대 75)<br><br>Tel. (718) 229-1188, (718) 899-4600<br>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br>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br><br><b>박종호 소아과</b><br>C. Thomas Park, M.D.<br>박종호 (의대 79)<br><br>Tel. (201) 242-1002<br>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br>정세근 (자연대 82)<br><br>Tel. (703) 663-8400(O), (703) 785-8467(C)<br>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br><br><b>Fairway Asset Corporation</b><br>남옥현 (경영대 84)<br><br>Tel. (301) 279-6969<br>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br>www.faclaoan.com |
| 부동산                                                                                                                                                                                                                                                                                                                                                                                                         | 재활의학                                                                                                                                                                                                                                                                                                                                                                                                                                                                                                                                                                                                                                                | 동물병원                                                                                                                                                                                                                                                                                                                                                                                                                                       | 부동산                                                                                                                                                                                                                                                                                                        |
| <b>Evergreen Realty</b><br>이재원 (법대 60)<br><br>Tel. (201) 944-5353<br>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br><br><b>COSMO Realty</b><br>이재덕 (법대 60)<br>Tel. (201) 944-4949<br>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br>www.cosmorealty.com<br><br><b>Promise Realty</b><br>김도명 (농대 70)<br>조민형 (음대 84)<br><br>Tel. (201) 585-7766<br>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br>Email: Promise@DonaldRealty.com | <b>김치갑 카이로프랙</b><br>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br>김치갑 (의대 73)<br><br>Tel. (201) 541-1111<br>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br><br><b>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b><br>Seung K. Kim, M.D.<br>김승관 (의대 70)<br>Tel. (718) 321-2870<br>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 <b>한의원</b><br><br><b>이수호 한의원</b><br>이수호 (보건대 69)<br><br>Tel. (718) 353-6207<br>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 <b>BPS Appraisal Company</b><br>박평일 (농대 69)<br><br>Tel. (703) 750-1707<br>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
| 리테일러                                                                                                                                                                                                                                                                                                                                                                                                        | Happy New Year!                                                                                                                                                                                                                                                                                                                                                                                                                                                                                                                                                                                                                                     |                                                                                                                                                                                                                                                                                                                                                                                                                                            |                                                                                                                                                                                                                                                                                                            |
| <b>New York Golf Center</b><br>이진구 (농대 60)<br><br>Tel. (212) 564-2255<br>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br><br><b>American Int'l Line, Inc.</b><br>윤병하 (농대 80)<br><br>Tel. (718) 995-7060<br>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  <div>Happy New Year!<br/>동문님들께 복된 한해를 기원합니다!</div>                                                                                                                                                                                                                                                                                                                                                                                                                                                                                                            |                                                                                                                                                                                                                                                                                                                                                                                                                                            |                                                                                                                                                                                                                                                                                                            |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

|                                                                                                                                                 |  |                                                                                                                                                                               |                 |                                                                                                                           |  |                                                              |  |                                                                                                                                                                    |  |
|-------------------------------------------------------------------------------------------------------------------------------------------------|--|-------------------------------------------------------------------------------------------------------------------------------------------------------------------------------|-----------------|---------------------------------------------------------------------------------------------------------------------------|--|--------------------------------------------------------------|--|--------------------------------------------------------------------------------------------------------------------------------------------------------------------|--|
| 성명 :                                                                                                                                            |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                 | 입학연도 :                                                                                                                    |  | 지부 :                                                         |  |                                                                                                                                                                    |  |
| 주소 :                                                                                                                                            |  | 전 주소 :                                                                                                                                                                        |                 |                                                                                                                           |  |                                                              |  |                                                                                                                                                                    |  |
| 업소이름 :                                                                                                                                          |  | 업소 주소 :                                                                                                                                                                       |                 |                                                                                                                           |  |                                                              |  |                                                                                                                                                                    |  |
| 전화 :                                                                                                                                            |  | Email :                                                                                                                                                                       |                 |                                                                                                                           |  |                                                              |  |                                                                                                                                                                    |  |
| 동창회후원금                                                                                                                                          |  | 동창회비(구독료)                                                                                                                                                                     |                 | 업소록 광고비                                                                                                                   |  | 일반광고                                                         |  | 특별후원금                                                                                                                                                              |  |
| <input type="checkbox"/> 연 \$200<br><input type="checkbox"/> 연 \$500<br><input type="checkbox"/> 연 \$1,000<br><input type="checkbox"/> \$_____  |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br><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br>1년: \$75 / 2년: \$150<br><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                 |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br><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br>1년: \$240 / 2년: \$480 |  | *문의: 사무국<br>484-344-5500 Ext 302<br>Email: general@snuua.org |  | <input type="checkbox"/> Education (장학금)<br><input type="checkbox"/> Charity (나눔)<br><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br><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
|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  |                                                                                                                                                                               |                 |                                                                                                                           |  |                                                              |  |                                                                                                                                                                    |  |
|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  |                                                                                                                                                                               |                 |                                                                                                                           |  |                                                              |  |                                                                                                                                                                    |  |
| Visa (   )    Master (   )    American Express (   )    기타 (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  |                                                                                                                                                                               |                 |                                                                                                                           |  |                                                              |  |                                                                                                                                                                    |  |
| Card No.:                                                                                                                                       |  |                                                                                                                                                                               | Security Code : |                                                                                                                           |  | Expire Date:                                                 |  |                                                                                                                                                                    |  |
| Cardholder' s Name :                                                                                                                            |  |                                                                                                                                                                               | Date :          |                                                                                                                           |  |                                                              |  |                                                                                                                                                                    |  |
| Address No. Only                                                                                                                                |  |                                                                                                                                                                               | Zip             |                                                                                                                           |  | Pay to order of 'SNUAA-USA'                                  |  |                                                                                                                                                                    |  |



|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귄)                                                                                                              |  |
|-------------------------------------------------------------------------------------------------------------------------------------------------------------------------|--|
| 서울대 미주동창회                                                                                                                                                               |  |
| 역대회장                                                                                                                                                                    |  |
|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br>오홍조(치) · 이영묵(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  |
| 명예회장 : 오인환(문)                                                                                                                                                           |  |
|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  |
|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br>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br>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br>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br>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  |
|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  |
|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br>조직국장   백옥재(음)      섭외국장   박형준(공)<br>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br>IT개발위원장   김원영(미)      사무장   서경희<br>(Webmaster)          |  |
|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  |
|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br>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br>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br>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br>편집/디자인   김태연 |  |
|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  |
| 논설위원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br>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br>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br>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  |
|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  |
| 위원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br>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  |
|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  |
|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br>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  |
|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  |
|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br>이원섭(농) · 강창석(의)                                                                                                                       |  |
|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  |
| 각 지역 지부장                                                                                                                                                                |  |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  |
|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br>이원섭(농) · 강창석(의)                                                                                                                       |  |
| 감사                                                                                                                                                                      |  |
| 주기묵(수의) · 박영철(농)                                                                                                                                                        |  |



# Thank you

52명 종신이사 현재 (\$3000이상)

|             |               |             |             |
|-------------|---------------|-------------|-------------|
| 심상은 (상대 54) | 방명진 (공대 73)   | 한재은 (의대 59) | 이상강 (의대 70) |
| 이병준 (상대 55) | 이청광 (상대 61)   | 방은호 (약대 43) | 오인환 (문리 63) |
| 오홍조 (치대 56) | 임용오 (의대 57)   | 박윤수 (문리 48) | 김재영 (농대 62) |
| 이세열 (사대 57) | 이홍표 (의대 58)   | 강연식 (사대 58) | 손재옥 (가정 77) |
| 박중수 (수의 58) | 조용원 (문리 66)   | 이교락 (의대 53) | 김명자 (문리 62) |
| 서동영 (사대 60) | * 오인석 (법대 58) | 조형준 (문리 62) | 오세경 (약대 61) |
| 전희택 (의대 60) | 윤정옥 (약대 50)   | 윤상래 (수의 62) | 권기현 (사대 53) |
| 임낙균 (약대 64) | 이전구 (농대 60)   | 윤선홍 (치대 64) | 고일석 (보건 69) |
| 한홍택 (공대 60) | 이기영 (농대 70)   | 서중민 (공대 64) | 오재인 (치대 33) |
| 노병호 (공대 61) | 이준행 (공대 47)   | 박태우 (공대 64) | 박경민 (의대 53) |
| 이종도 (공대 66) | 이재덕 (법대 60)   | 강영빈 (문리 58) | 남상용 (공대 52) |
| 제영혜 (가정 71) | 이용락 (공대 48)   | 조시호 (문리 59) | 서영석 (의대 55) |
| 서치원 (공대 69) | 정 태 (의대 57)   | 이광연 (공대 60) | 한귀희 (미대 68) |

( \* 한번 이상 내신분 )



jayone.com

##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대표: 이승훈 (상대 74)

Tel: 562-633-7400



Paper Russell's

##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 77)

WWW.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INFO@PAPERRUSSELLS.COM      F. 801.479.4663



서울대 동문 10% 할인

혼자이긴 하지만  
아껴줄 당신

# 기쁜환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 2017

## Happy New Year

미주 총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Since 1979, LEE & RO Inc. provides water infrastructure engineering services for public water agencies, municipalities and sanitation agencies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WWW.LEE-RO.COM**

**노명호 (공대61)**

M. Steve Ro, P.E.  
President / CEO